

제9회 한국교회 설교가 연구

“이종윤 목사의 설교와 신학”

발 표 자 : 서중석 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원장)

김세광 박사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이상규 박사 (고신대학교 교수)

논 찬 자 : 문성모 박사 (대전신학대학교 총장 )

일 시 2004년 10월 25일(월) 오후 4시

장 소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주최 : 한국교회사학연구원 / 한국기독교회사학회

Korea Academy of Church History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Church History

#### 차 례

인사의 말씀	민경배 총장	3
예배순서	사회 : 유정우 박사	5
약 력	이종윤 목사, 사회자	6
이종윤 목사의 설교와 수사학	서중석 박사	9
이종윤 목사의 설교와 신학	김세광 박사	39
이종윤 목사의 교회 건설과 설교	이상규 박사	63
한국교회사학연구원이 걸어온 길		87
서울교회 소개		92

#### 인사의 말씀

##### 민 경 배

한국교회사학연구원장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한국교회사학연구원은 그 어간 연례적으로 “한국교회 10대 설교가 연구” 공개발표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광선희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옥한흠 목사님, 길자연 목사님 이렇게 여덟 분의 설교를 국내외 저명 학자들을 통하여 연구 발표하여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가 한국교회의 강력한 힘의 근원을 밝히고, 동역 목회자들에게는 설교의 구성과 그 전개의 구도를 이들 여러 설교가들에게서 읽어서, 한국교회 설교와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획기적 이정표로 삼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취지가 한국교회에 알려져서 그 동안의 발표회가 실로 미증유의 성황을 이루었던 것이며 그 기여도 지대하였던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발표를 위하여서 한국 유수의 석학들이신 연세대학교의 서중석 박사님과 서울장신대

학교의 김세광 박사님 그리고 고신대학교의 이상규 박사님, 이 세 분께서 그 동안 알찬 연구를 하시어 오늘에 그 결실을 피로(披露)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대전신학대학교 총장이신 문성모 박사님께서서는 그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시어 총평을 하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네 분의 수고와 그 명료한 분석이나 프레젠테이션에 우리 모두들 갈채와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이신 이종운 목사님께서서는 이미 한국교회의 지도자로서 서울교회의 목사이실 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회장으로로서 이미 그 명성이 나라 안밖에 쟁쟁(錚錚)한 분이십니다.

이 발표회를 위하여서 준비를 많이 하신 세 분의 교수님들과 문성모 총장님, 그리고 내림하신 여러 분들, 이 발표회를 준비하노라고 애쓰신 한국교회사학연구원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이 발표회가 이종운 목사님에게는 큰 영광이 되고, 세 분 교수님들과 총평을 하여 주신 네 분 모두에게는 한국교회 그 역사의 증인으로서의 공지가 되시고, 그리고 만장하신 여러 내빈과 청중들에게는 잊혀지지 아니하는 기억으로 길이 남게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제9회 한국교회

설교가 연구

- 이종운 목사의 설교와 신학 -

순 서

사회: 유정우 박사

(평택대 대학원장)

개 회 사            사회자

기사말도            유지수 목사 (참좋은교회)

인사말씀            민경배 총장 (원장)

발사말표            말 은 이

이종운 목사의 설교와 수사학

서중석 박사 (연세대 대학원 원장)

이종운 목사의 설교와 신학

김세광 박사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축사말가            서울 목자 중창단

이종운 목사의 교회건설과 설교

이상규 박사 (고신대학교 교수)

논사말찬            문성모 박사 (대전신학대학교 총장)  
인사말씀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광사말고            권 평 박사 (책임연구원)  
축사말도            박옥선 목사 (이사장)

이종윤 목사 약력

// 연세대학교 신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B.Th., M.Th.)  
//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 (M.Div., Th.M.)  
// 독일 튜빙겐 대학교 및 미국 템플 대학교에서 수학한 후  
// 영국 성 앤드류스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위 (Ph.D.) 취득  
이후    ▶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및  
          미국 플러 신학교 초빙교수와  
          이스라엘 탄투어 신학연구원 연구교수,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한 후  
          전주대학교 총장으로 봉직하였다.  
          현재 연세대 객원교수 및 장신대 겸임교수

현재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담임목사이며 KIMCHI(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원장 및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원장이다.

현재    세계 신약 학회 (SNTS) 회원, 한국 장로교 신학회 회장, 한국 군선교 신학회 회장, 아세아 신학연맹 (ATA) 이사 및 신학교 인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로잔(LCWE) 실행위원,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WEF) 교회갱신위 위원장 및 아시아 로잔위원회 의장으로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지도자 가운데 한사람으로 활동 중이다. 교회 개척에도 힘써 벨렐교회(3사단 18연대 3대대 최초의 대대단위 교회)와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미국이민교회)를 개척하고 할렐루야 교회와 전주대 대학교회를 개척했으며 서울교회를 개척하여 현재에 이른다.

저서    ▶        『신약 개론』, 『신구약 개설』, 『헬라이어 강독』, NT Greek-An Inductive Study of the Complete Text of the Gospel of John, 『산상보훈』, 『예수의 기적』, 『요한복음 강해(I-IV)』, 『로마서(I-IV)』, 『에베소서 강해』 등의 성경 강해서와 『크리스찬 지도자론(여호수아, 느헤미야)』, 『교회성장론』, 『순례자』(칼럼집)와 Paul and Historical Jesus, 『성경난해구절해설』 등 수많은 저서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소위 메시아 비밀이론에 대한 소고”(성경과 신학 1권), “God, The Creator and Redeemer in the New Testament”(God in Asian Contexts, ATA Theological Library vol.3) 외 다수의 논문이 국내외 신학잡지에 게재되었다.

발표자 약력

서중석 박사  
학 력:

- ▶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신학과
-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 ▶ 뉴욕, Union Theological Seminary (S.T.M.)
- ▶ Bost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 D.)
- ▶ Yale University Divinity School (Research Fellow)

저 서:

- ▼ Discipleship and Community (1991)
- ▼ 『복음서해석』 (1991)
- ▼ 『예수』 (1992)
- ▼ Glory in the Gospel of John (1995)
- ▼ 『청정한 빛』 (1996)
- ▼ 『바울서신해석』 (1998)
- ▼ The Gospel of Paul (2004)

경 력:

- ▶ 연세대학교 학술상 수상
- ▶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장 및 연합신학대학원장 역임
- ▶ 현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신약학 교수
- ▶ 현 연세대학교 대학원장

김세광 박사

학 력:

-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사)
-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
- ▶ 미국 Yale University (S.T.M.)
- ▶ 미국 Boston University (Th. D.)

저 서:

- ▼ 공저.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2004)  
『예배학사전』
- ▼ 번역. 『탁월한 설교가 유능한 이야기꾼』 (Ken Davies 저, 1998)  
『내가 가 본 예배, 감동을 누린다』 (Robert Webber 저, 2004)  
『신약 성서에 나타난 주의 만찬』 (A. B. Hignins 저, 2001)  
『변경된 새로운 기독교 용어』 (전문위원) (2003)

경 력:

- ▶ 현 서울장신대학교, 예배설교학 교수
- ▶ 미국예전학회(NAAL) 정회원
- ▶ 한국기독교언어문화학회 연구위원
- ▶ 실천신학대학원 학술전문위원
- ▶ 총회헌법 전문위원(예배분과)
- ▶ 총회 기독교용어연구위원

이상규 박사

학 력:

- ▶ 고신대학교 신학과 (B. Th.)
- ▶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
- ▶ 고신대학교 대학원(Th. M.)
- ▶ 호주 Presbyterian Theological College, Victoria 수학
- ▶ 호주 Australian College of Theology (Th. D.)
- ▶ Calvin College (Visiting Scholar)
- ▶ Magurie University (Research Fellow)

저 서:

- ▶ 『교회개혁사』 (1997)
- ▶ 『교회의 역사』 (1999)
- ▶ 『부산지방 기독교 전래사』 (2001)
- ▶ 『가난과 부요의 저편』 (2001)
- ▶ 『교회개혁과 부흥운동』 (2004)

경 력:

- ▶ 현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 ▶ 1992년 통합연구학회 학술상 수상

문성모 총장

- ▶ 서울대, 장신대, 독일 오스나부르크대 졸업 (Ph. D.)
- ▶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역임
- ▶ 광주제일교회 담임목사 역임

현재

- ▶ 대전신학대학교 총장
- ▶ 한국실천신학회 회장
- ▶ 한국찬송가공회 전문위원

이종윤 목사의 설교와 수사학

서 증 석

연세대 신과대학 교수, 신약학

< 목 차 >

- I. 서 언
- II. 설교와 수사학
- III. 사도들의 파레스시아 설교와 이종윤 목사의 설교
- IV. 이종윤 목사 설교의 에토스
- V. 이종윤 목사 설교의 로고스
- VI. 이종윤 목사 설교의 파토스
- VII. 결 어

## I. 서 언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역사가 기억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이다. 그는 비단 종교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근대 서양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설교자로서 살아간 사람이다. 칼빈은 1541년부터 제네바에서 주일에는 두 번, 그리고 평일에는 월, 수, 금요일에 설교하였다. 1542년부터는 두 번째 주일에는 두 번 설교하였고, 주중에는 매일 설교를 하였다. 그의 설교 가운데 약 1천여 편이 분실되었다고 전해지지만 오늘까지도 약 1460편 가량의 설교 원고가 남아 있을 정도로 그의 설교 분량은 대단하다. 그 분량으로도 칼빈의 전체 저작 가운데 약 삼분의 일에 해당하며 분실된 설교를 포함하면 칼빈의 지적 활동의 결과물 가운데 설교가 상당한 분량에 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칼빈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삶 속에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고 보았다. 목회자로서 칼빈은 설교를 통하여 공동체 속에서 성결한 시대사조를 이끌어 내려고 하였고, 교회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편으로서 설교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칼빈의 사역에서 사회를 개혁하고 교회의 성결한 삶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설교가 최우선의 과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

이종윤 목사와 그의 설교를 통해 ‘설교자 칼빈’을 떠올리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그가 수시로 ‘칼빈’을 거명해서가 아니다. 칼빈이 그의 시대에 설교로써 감당했던 일들을 오늘날에는 이종윤 목사가 이루어 놓아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는 설교로써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가?

오늘 우리 사회가 닥친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던 이종윤 목사는 이 문제를 “단순한 사회 병리 현상으로만 진단할 것이 아니라 영안(靈眼)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2) 그 후 그는 교회가 세 가지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것들은 바로 ‘종교개혁정신의 재발견’, ‘예언자 정신과 사도 정신의 재발견’, ‘한 몸 된 교회관의 회복’ 등이다.3) 따라서 우리가 이종윤 목사의 설교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이 세 가지 교회의 사명이 어떻게 그의 설교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연구가 적절하다.

이 논문은 수사학적 방법론을 통해 이종윤 목사의 설교가 위의 세 가지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설교를 분석하고 이를 이종윤 목사의 설교와 비교하며, 이것이 종교개혁정신 특별히, 칼빈의 설교관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논구할 것이다. 또한 이종윤 목사의 설교가 한 몸 된 교회, 선교하는 교회, 내실화된 교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드러내려 한다.

## II. 설교와 수사학

오늘날 ‘수사적’ 혹은 ‘수사학적’이란 표현은 통상적으로 경멸적인 함의를 갖는다. 곧 화려

한 미사여구에 비해 실속 없는 글이나 말에 ‘수사(학)적’이라는 형용이 붙는다. 그러나 수사학은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 학문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탄생한 서양의 수사학은 고르기아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신수사학, 3학문(중세)의 계보를 형성하며 꾸준한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교육과 학문의 장에서 수사학은 필수과목으로 학습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수사학에 경멸적 함의가 붙은 것은 19세기 말의 낭만주의 미학의 등장 때였다. 낭만주의 미학은 수사학의 정형화되고 정교화된 수사적 기법에 반발하면서 인간의 창조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잠시 동안의 ‘종말’을 끝낸 후, 수사학은 최근 20년 전부터 새로운 활기를 띠고 부활하고 있다.4) 수사학의 부활은 ‘성서’라는 텍스트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성서학에서도 뚜렷하다.5)

신약성서가 헬라어로 기록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헬라어를 가르치는 김나지움은 반드시 수사학을 동시에 교육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헬라어를 배운다는 것은 수사학을 동시에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신약성서는 전통적인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한 여러 본문들을 갖고 있다. 그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성서 기자가 처한 선교적 정황이 수사학자들이 고려한 수사학적 정황과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6) 그레코-로마 사회에서 사도나 전도자들, 혹은 성서기자들이 설교나 선포, 그리고 글을7) 통해 사람들에게 ‘믿음’(pistis)을 갖게 하려 한 선교적 정황은 수사학자들의 수사학적 정황과 큰 차이가 없다. 수사학자도 말이나 글을 통해서 청중들을 ‘설득’(pistis)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8) 청중이 수사학자의 연설이나 글을 통해서 그 말 혹은 글을 ‘믿게’ 되는 상황이 바로 ‘설득’된 것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판단할 때 선교사들의 선포나 수사학자의 연설이나 다를 바가 없다. 곧 둘 다 청중의 ‘피스티스’를 바라기 때문이다.9)

신약성서 자체, 아니 예수의 담론 자체가10) 수사학적 요소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에 대한 수사학적 접근에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질 이유는 없다. 오히려 현대의 여러 분야가 다시 본격적으로 수사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다시 기독교의 선교 역시 수사학적 정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설교 연구에도 수사학이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필 때라 할 수 있다.

수사학적 방법으로 설교를 분석한다는 것은 설교자가 청중을 설득하기 위하여 어떤 수사학적 장치들을 사용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고전적인 이론을 정리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으로 수사적 기술을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가) 논거발견술 (inventio, 혹은 ‘주제설정’)11), 나) 논거배열술 (dispositio), 다) 표현술 (elocutio), 라) 기억술 (memoria), 마) 연기술 (actio). 활자화된 책을 가지고 분석하는 작업에서 기억술과 연기술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하다. 이 논문은 남은 세 가지 중에서 논거발견술을 주된 분석 도구로 사용한다.

‘논거발견술’은 연설이나 담론의 전제들을 구성하고 정보를 제시하는 설득력 있는 방법을 탐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방법들은 크게 ‘기술 내적 논거들’과 ‘기술 외적 논거들’로 나눈다. 이 중 ‘기술 내적 논거들’ 속에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논거들을 다루는 ‘로고스’와 도덕적, 주관적, 정서적 논거들을 다루는 ‘에토스’와 ‘파토스’가 속한다.12)

이 논문은 이종윤 목사 설교를 기술 내적 논거에 속한 수사학적 개념인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가지고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에토스란 청중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설교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화자가 청중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폭넓게 일컫는다.13) 곧 성품이나 감정의 표현,14) 그리고 화자가 자처하는 역할 모형을 통하여 청중들을 설득하려는 것이 바로 에토스(ethos)의 수사학이다.15)

에토스가 설교자와 관련된 감정이나 도덕적 품성, 그리고 역할 모형을 이용한 수사학이라면, 파토스는 주로 청중의 감정적인 면에 호소하여 그들의 의견을 바꾸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방법이다. 곧 분노와 온유, 호의와 적대감, 공포, 부끄러움, 수치, 친절과 불친절, 동정심과 무자비, 시기와 경쟁심, 희망과 멸시, 혹은 감탄 등을 청중들에게 불러 일으켜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행동하게 하는 수사학적 장치이다.<sup>16)</sup>

에토스와 파토스가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설득의 방법이라면 로고스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의 방법이다. 로고스를 통한 수사적 논증은 크게 귀납적인 예증법과 연역적인 생략 삼단 논법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예증법은 설득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훌륭한 실례들을 찾아내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는 강한 호소력으로 주제를 지지한다. 예증은 그 성격에 따라 역사적인(historical) 것과 가상적인(fictitious) 것이 있다. 역사적인 것은 역사적 사건들이나 인물들에 얽힌 것들이고, 후자는 비유나 우화(fable), 혹은 꾸며낸 이야기 등이 있다.<sup>17)</sup> 흔히 설교에서 ‘예화’라고 불리는 것들은 예증과 개념적으로 겹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사학적 방법은 설교를 분석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기존의 설교 분석이 주로 설교의 주제적 접근이나 설교자의 신학 및 생애에 관심이 제한된 반면, 수사학적 방법은 설교자와 설교 본문, 그리고 청중들의 반응 등의 세 가지 의사소통의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며, 또한 기술적으로 명확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 III. 사도들의 파레시아 설교와 이중운 목사의 설교

사도행전은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의 설교를 담고 있다. 그런데 그 설교는 사도행전 기자가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파레시아’라는 단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파레시아’는 기본적으로 ‘공개성’, ‘솔직함’, ‘확신’이나 ‘담대함’을 의미하고, 그것의 동사형인 ‘파레시아조마이’(parresiazomai)는 ‘공공연하게 말하다’, ‘자유롭게 말하다’, ‘용기를 얻다’, ‘담대하게 선포하다’ 등을 뜻한다. 이 단어는 일차적으로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무엇인가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할 자유를 가리켰다. 파레시아는 도덕적 덕성으로도 간주되었고 동료들에게 숨기지 않고 개방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덕성, 특히 담대하게 동료들을 칭찬하거나 비판하는 덕성으로 칭송받았다.<sup>18)</sup>

신약에서 총 31번 사용된 파레시아는<sup>19)</sup> 말이나 행동의 공개성을 가리키거나 하나님을 향한 정직과 확신을 의미하였다. 예수(7회), 사도행전의 바울(8회), 다른 전도자나 사도들(5회), 기타의 성도들(10회)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파레시아를 보여주었다고 보도된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파레시아는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행동과 관련된다.

사도행전에서 파레시아는 베드로의 선포와 함께 처음으로 등장한다(2.29). 2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베드로의 선포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곧바로 일어난 사건이다(2.1-4).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글(2.16-21)과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sup>20)</sup> 청중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2.23) ‘담대히’ 말하는데(2.29), 그 내용은 나사렛 예수가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과 그의 죽음 및 부활의 의미였다.<sup>21)</sup> 청중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찢림을 받았다고 보도된다(2.37).

4장 13절에서는 2장 14절과 마찬가지로 파레스시아가 성령 및 구약 성서 예언의 성취 주제와 연결되어 등장한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4.8)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시편을 인용하며(4.11)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4.10)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구원을 주시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한다(4.10, 12). 4장 13절은 이와 같은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응을 기록한다.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면서, 그들을 배우지 못하고(agrammatoi) 평범한(idotai) 사람으로 알았던 그들[유대인 지도자들]은 놀랐다(ethaumazon).” 22)

여기서 놀람을 가리키는 ‘thaumazo’가 누가-행전에서 신적 현현 혹은 개입과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단어(눅 1:21; 4:22; 행 2:7; 4:13)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누가는 유대인 지도자들마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4장 13절의 파레스시아는 2장에는 없는 두 가지 새로운 주제와 함께 나타난다. 2장에서 선포의 대상이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청중인 반면 4장에서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4.1),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4.5) 등 이른바 적대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청중으로 등장한다. 곧 베드로와 요한의 파레스시아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갈등의 요인이 된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파레스시아를 직접적으로 제어하고자 한다.

“그들[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4.18).”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4.20)고 응답하면서 그들의 파레스시아를 주장한다. 두 번째 새로운 주제는 치유와 같은 기적이 파레스시아와 함께 등장한다. 담대한 선포에 뒤따르는 이적은 그 선포의 능력과 참됨을 입증하는 기능을 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 동료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에서 파레스시아가 다시 등장한다. 누가는 여기서 매우 정교한 문학적 능력을 보여준다. 사도행전에서 파레스시아가 맨 처음 나타난 곳에서는 베드로 혼자 파레스시아를 보여준다. 이후 베드로와 요한, 이 두 명이 함께 적대적인 상황에서 파레스시아를 드러낸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받은 제자들 모두가 이 파레스시아의 덕을 보여준다(4.31). 곧 파레스시아는 점점 더 확장된다.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들은 제자들이 파레스시아를 보여주는 단락(4.23-31)에서도 파레스시아와 관련된 기존의 주제가 반복된다. 곧 성령(4.25, 31)과 성서의 인용 및 해석(4.25-26), 죄의 지적 및 회개의 촉구(4.27),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와 치유와 같은 이적(4.30) 등등.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주제가 도입된다. 찬양과 기도가 그것들이다(4.24, 31). 또한 여기서 파레스시아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할 덕목으로 간주된다(4.29).

이후 파레스시아는 동사 형태로 바울의 사역을 묘사한다.23) 다메섹에서(9.27f), 바나바와 함께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상대로(13.46), 에베소의 비판적인 유대인과의 논쟁 과정 중에(19.8), 재판 과정 중에 총독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을 청중으로 하는 변론 중에(26.26) 바울은 파레스시아를 보여준다.

바울이 보여준 마지막 파레시아는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곧 28장 31절을 장식한다. 여기서도 파레시아와 함께 등장하는 주제들이 반복된다. 성령(28.25)과 성경 인용 및 해석(28.26-27), 죄의 지적과 회개의 촉구(28.27-28),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28.23)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28.31) 로마의 유대인들과의 갈등(28.24) 등등. 그는 ‘모든 파레시아’(pases parresias)를 가지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pantas) 사람들을 가르쳤다(28.30-31)고 보도된다.

요컨대, 사도행전에서 파레시아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죄의 지적과 회개의 촉구,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공중을 향하여 거리낌이나 주저함 없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한다. 이 증언은 반대자들과의 갈등, 그리고 비난과 적대적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파레시아를 받은 제자들은 비판이나 삶의 위협에 주저 하지 않는다. 오히려 파레시아를 통해 선포되는 증언은 힘이 있고 감화력 있어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한다. 한 마디로 파레시아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에 깨닫게 된 제자들이 어떤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능력 혹은 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파레시아’를 우리는 사도들의 설교의 수사학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도들의 에토스, 곧 그들이 청중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이다. 그들은 성령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 담대하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사도들의 로고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의 말씀에 의존한 논의의 전개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서나 시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신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언행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하고 전하였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의 ‘agrammatoi’를 넘어선다. 진리의 중심이 없는 박학은 끝없는 번민과 파편화된 지식의 무의미한 확장으로만 치닫는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사도들은 비록 ‘배우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빛 아래에서 구약의 말씀을 통전한다. 그들은 산만한 지식의 과잉 축적을 자랑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경위를 자아냈다. 사도들은 죄의 지적과 회개의 촉구를 통해 청중들의 파토스를 불러 일으켰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참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청중들을 격려하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사도들의 파레시아의 설교와 그 수사학이 이종윤 목사의 설교와 그 수사학을 파악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개념임이 이후의 논의에서 드러날 것이다.

#### IV. 이종윤 목사 설교의 에토스

설교는 목사에게 근본적인 의무이다. 교회의 행정이나 사업의 중요성도 설교에는 미치지 못한다. 설교가 그와 같이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 뜻의 선포이기 때문이다. 설교자의 권위 역시, 그가 봉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따라서 설교자가 단순히 확성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성경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을 가감 없이 전파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에게

“순수하고 솔직한 복음 설교와 가장 크게 반대되는 것은 지나친 두려움이다. -중략- [설교

자는] 주님께서 교회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직설적으로 또 꾸밈없이 제시해야한다.” 24)

가차 없고 꾸밈이 없는 선포는 요동하는 사회에서 논란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이종윤 목사의 설교는 그 가차 없고 꾸밈이 없는 선포의 성격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는 엄밀하게 말해서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옛세 동안 힘써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25)

위의 글은 이종윤 목사의 십계명 중 제 4계명에 대한 설교(26)의 한 부분이다. 이 설교는 1) 안식일의 성경적 의미를 밝히고, 2) 기존의 오해를 교정하며, 3) 성도로서의 올바른 행동을 촉구하는 강해설교의 모범이자 전형적인 이종윤 목사의 설교 형식을 보여준다.

안식일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교정하는 데에 할애된 두 번째 부분에서 그는 안식일이 일을 안하고 휴식하는 날이라는 고정관념을 비판한다. 안식은 (1)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점을 밝힌다. “쉬는 것도 안식이지만 적극적인 기록이 없이는 참 안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피로운 노동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이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27) 또한 안식일은 (2)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날이다. 이 날은 용서와 회복, 중생의 체험을 갖는 날이다. 곧 이종윤 목사는 안식일 제도를 휴무 제도나 공휴일 제도로 생각하는 오해를 교정한다.

주 5일제와 관련하여 인용한 글은 안식일과 그와 긴밀하게 연결된 성경적 노동관(28)을 밝히고, 올바른 노동관에 입각해서 살아가라는 세 번째 부분에 속해 있다. 이종윤 목사는 성경이 노동을 결코 저주의 산물이 아니라 축복으로 본다는 점에서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과 구분된다고 말한다.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근면과 절제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해명한다. 이종윤 목사에 따르면 주 5일제는 바로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그는 성경에 가르침에 위반된 제도가 결국 향락 산업의 확산과 교회의 공동화(空洞化)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이 글이 다루려는 요점은 주 5일제에 대한 그의 성경 해석이 옳으나 그르냐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이종윤 목사의 해석과 그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해석 중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정하는 것이 이 글의 관심이 아니다. 실상 틀림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유력한 해석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논문이 주목하는 바는 주 5일제에 대한 그의 선포는 그가 믿고 아는 성경의 가르침을 ‘순수하고 솔직하게’, ‘가차 없이 혹은 꾸밈없이’ 전한다는 에토스를 가지고 청중들에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의 설교의 충심(忠心)은 이른바 ‘개교회 이기주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근면과 절제, 노동의 축복을 수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청중들은 듣게 된다. 다음의 설교는 청중으로 하여금 이종윤 목사의 에토스가 일관되어 있고,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29)

“땅 한 평에 몇 천 만원씩 받아먹는 사람이 도적 중에 강도입니다. 몇 년 전에 몇 백 원씩 사가지고 몇 년 후에 몇 십 배씩 받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강남지역에 땅값이 얼마입니까. 땅 몇 십 평에 5-60억하니 이 돈이면 자자손손 몇 대가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액수입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매매도 위장을 합니다. 이것이 도적놈입니다. 바울은 이제 도적질 그만하고 일 좀하라고 합니다.” 30)

이종윤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강남구 대치동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려는 그의 예언자적, 사도적 설교 정신에는 마땅한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sup>31)</sup> 이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명령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칼빈의 설교관과 일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와 명령으로 선포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은 곧 다른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 낸다. 이 구절 [디도서 2:15]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야한다’라고 명령하여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기란 불가능하다고 가르친다.”<sup>32)</sup>

이종윤 목사의 거침없는 권위와 명령형의 설교 배후에는 아집과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 또 사람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데에 있다는 믿음이 있다.<sup>33)</sup> 때로 그의 설교는 듣는 이들에게 가혹하게 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다.

“생명이 거의 끝나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빨리 안 데려가시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오히려 죽는 것이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동안 그는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무언의 설교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이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sup>34)</sup>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환자조차도 그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또 돌려야 한다는 명제는 신앙인의 당위이지만 이종윤 목사는 단지 당위적 차원에서 이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죄라는 그의 선언은 그가 믿고 알고 체험하고 선포한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였다. 곧 그의 하나님 신앙과 신앙적 감격이 그러한 ‘비인간적’ 선포를 가능케 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체험하고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가 소선지서를 강해하면서 내건 설교 제목들이 그의 하나님 이해를 단적으로 대변한다.<sup>35)</sup>

이종윤 목사의 소선지서 강해에서는<sup>36)</sup> ‘하나님’이 포함된 설교 제목이 상당수 있다. 이들 중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는 제목들이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혹은 이보다 더)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속성이다. 요컨대, 그는 미가서 강해 설교의 제목대로 그 은혜와 능력에서 “하나님 같은 이 없도다”<sup>37)</sup>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한 설교자의 에토스를 지니고 있다. 그는 시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사도행전 4장 19-20절)라고 선언한 사도들의 ‘우리’에 동참한다.

사도들이 하나님에 반하는 인간적 권위와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듯이 이종윤 목사도 사람들의 사회적 압력과 인간적 연민에 굴복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이리와 도둑을 밀어내고 쫓아내는’ 논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곧 그는 칼빈의 ‘두 개의 음성’ 곧 양들을 영접하는 음성과 이리를 쫓아내는 음성에 관한 충고를 성실하게 받아

들인다.

칼빈의 시대에 그는 ‘짓는 개’, ‘천박한 염소’, ‘게걸스런 늑대들’이라는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고 논쟁적 설교를 통해 이슬람, 세례반대파,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논박하고 비판하였다.38) 이종윤 목사도 이 시대에 복음에 도전한다고 판단되는 주장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가한다. 그가 가하는 비판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교회 외부에서 오는 도전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내부로부터 오는 도전이다. 그 중 그가 여러 번에 걸친 비판한 대상은 WCC의 “1976년 방콕선언”이다.

“방콕선언에서 WCC는 불교, 힌두교, 모슬렘교 등 모든 종교가 연합하자고 하면서 탈(脫)기독교를 주장했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와 종교 사이에서 기독교만 주장하는 것은 배타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 다른 종교를 흡수함으로써 마치 포용력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흐리는 말이며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39)

이종윤 목사의 말 그대로 그의 입장은 배타주의가 아니라 기본적 진리의 옹호에 있다. 그는 배타주의와 거리가 멀다. 곧 그는 진리의 옹호자와 선포자로서의 일관된 에토스를 보여준다. 이는 그가 자기 교단이나 그것이 만든 신앙고백의 절대성을 주장하지 않는 곳에서 일관성을 보여준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톨릭을 이단시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따르지 못할 경건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 개신교 목사가 따를 수 없는 경건이 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너무 간단하게 취급해서도 안됩니다. .... 교리가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고백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입니다.” 40)

줄곧 비판의 대상이 된 WC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종윤 목사는 그곳에 가입하지 않지만 결코 WCC에 대한 입장이 교회 분열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교회는 요한복음서 17장 23절에 따라 진리 안에서 외적 일치와 내적 연합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41)

교회 내부의 도전이 복음적 진리에 대한 문제라면 교회 외부의 도전은 무신론 및 현실참여 문제와 관련이 있다.

무신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자로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 그런가 하면 실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 실제적 무신론자 가운데는 소위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2)

이종윤 목사는 공산주의 뿐 아니라 ‘1789년 불란서 혁명’의 역사적 의미도 교회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본다. 그 도전의 핵심은 인본주의에 있다. 그리고 이 인본주의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변적 신학’, ‘교세 확장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 매몰된 결과로 빚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에 대해 “교회가 가장 최우선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43)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는 일이 최우선이라는 그의 말은 인류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칼빈의 견해와 부합한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사하신 수 없이 많은 숭고한 은사들 중에서 독특한 권리는, 사람들의 입과 혀를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것들 안에서 그 분 자신의 음성이 들리게 하신 것이다.” 44)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숭고한 은사의 특권을 성별된 입과 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시는 바를 선포하는 과업에 헌신하고 모든 개인과 단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도록 이끌어주고 지도해 주고 또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시민정부가 자기의 권위의 한계를 범했을 경우에 교회는 이에 시정을 요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비판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적하기까지도 한다.” 45)

이종윤 목사의 설교가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설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를 청중들에게 알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강조는 설교의 목사의 ‘두 개의 음성’ 중 “양들을 영접하고 모으는” 일에 대한 그의 열정을 보여준다.

이종윤 목사는 설교자로서 예언자와 사도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에토스를 계승한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한다. 이 선포에 어떤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없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그가 믿고 아는 바를 증언한다. 그는 복음의 선포에 따른 논쟁이나 비난의 목소리에 개의치 않는다. 복음의 진리를 알리기 위해 그는 ‘두 개의 음성’ 중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는다. 복음의 적들을 향해 공격하며, 더 많은 양들의 생명 및 더 풍성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로 전도하고 선교할 것을 강조한다. 설교에서 그는 명쾌한 학자적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그의 학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지 사변을 늘어놓거나 일체의 학문적 잡담에 빠지지 않는다.

수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에토스의 특징으로 신앙의 지속적인 일관성, 진리를 향한 열정, 잘못된 것에 대한 격렬한 의분, 학자적인 좋은 분별력, 하나님 앞에 인간적 한계에 대한 겸손 등을 들 수 있다. 이종윤 목사의 설교는 에토스 수사학의 절정에 있다. 그의 설교 앞에서 우리는 살아 꿈틀거리는 한 학자적 예언자의 대언을 듣는다.

## V. 이종윤 목사 설교의 로고스

이종윤 목사의 정열적 에토스가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설교의 로고스가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곧 설교의 간결함과 명료함은 지적 탁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간결함과 명료함은 그의 ‘파레시아’에서 온 것이다. 아무리 지적으로 탁월한 학자라도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한 그의 학문은 회의(懷疑)의 번잡함에 빠지고

말기 때문이다. 이 간결함과 명료함은 칼빈의 성경 해석의 특징과 일치한다.

슈타우퍼는 칼빈의 성경 해석이 세 가지 규칙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정리한다.<sup>46)</sup> 그 중 두 가지의 특징이 칼빈 설교의 로고스와 관계가 있다.<sup>47)</sup> 첫째, ‘단순하게.’ “설교란 ‘청중들의 이해력에 부응하여’ 각 신자가 그 설교에서 ‘자신의 몫과 분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sup>48)</sup> 둘째, ‘간결하게.’ 간결성은 칼빈이 좋아하던 특징 중에 하나였다. 칼빈은 한 편지에서 “주석가의 주된 힘은 평이한 간결성에 있는 것이요, 결코 애매모호함으로부터 올 수 없다”고 말하였다.<sup>49)</sup>

단순하고 간결한 설교의 기원은 실상 사도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간결한 복음이 무익한 인간적 논쟁에 휩싸이거나 전락하지 않기를 원했다(딤후 3.9; 딤후전 1.3-4).

이와 같이 칼빈이 설교가 간결하고, 단순해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는 그가 생각하는 성경 자체의 특징에 있다.

“성경의 참된 의미는 본질적이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의미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자. ... 우리를 본질적인 의미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짓된 해석을 부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완전히 삭제하자.”<sup>50)</sup>

이종윤 목사 역시 그의 간결하고 단순하며 명료한 설교의 근거가 성경 자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1998년 3월1일부터 시작한 성경난해구절 해설을 6년 2개월 동안 집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난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인고로 그 뜻이 반드시 밝혀지도록 된 것이 성경임을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sup>51)</sup>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혼란도 없었고 대답을 찾기 위한 몸부림도 없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난해한 문제로 보는 우리 마음에 있을 뿐이다.”<sup>52)</sup>

이종윤 목사가 그의 설교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구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난해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보다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종교개혁적 성서 해석 원리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설교도 그러하지만 이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 설교들은 『산상보훈 - 천국시민윤리』에 담겨 있다.<sup>53)</sup> 이 중 몇 편의 설교의 직접 성서 인용 회수를 아래와 같이 수치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 1’는 간접 인용을 제외한 채 단지 직접 인용 회수만을 센 것이지만 그 인용 회수는 다른 설교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거의 한 쪽에 두 번 정도에 달하는 직접 인용이 있다. 이와 같이 빈번한 성경 인용은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전제 아래 ‘신약의 저자가 하나님’이므로 거기에 근거를 둔 “성경의 일관성”과 권위에 기초해 있다.<sup>54)</sup>

성경의 인용을 통한 설교는 몇 가지 유익을 준다. 첫째, 설교를 성서의 가르침 안에 둔다. 곧 설교가 자칫 설교자의 ‘사상’이나 세대의 ‘가치관’ 혹은 다른 ‘이론’에 근거하지 않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제6장 세 가지 덕성”이라는 제목의 설교 중 일부인 “II. 마음이 청결한

자 (마 5:8)” 단락은 2와 1/2쪽에 불과하지만 직접 인용은 무려 9차례에 달한다.55) 이러한 인용을 통하여 이종윤 목사는 ‘마음’과 ‘청결’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 질 수 있는지를 밝힌다.

둘째, 성경의 직접 인용을 통한 설교는 본문의 뜻을 간결하게 전달하면서도 성서의 권위를 통한 설득력을 갖게 한다.56) 성서의 메시지가 오늘날 현실에서 곧바로 실천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한 메시지를 위해 권위 있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청중들은 성서의 분명한 메시지를 깨닫고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그 권위를 받아들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경 인용을 통한 설교는 난해 구절을 해석하는 데에 힘을 발휘한다. 이종윤 목사는 자신의 설교에서, 그의 신학적 지식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이나 일반 학문의 권위자를 빈번히 인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성경 그 자체를 인용함으로써 성경 구절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해석들을 대립시키기보다는 성경의 권위와 감화력으로 직접 청중들을 인도한다. 이는 설교에 있어 성경 인용에 대한 칼빈의 확신과 동일하다.

“설교에서의 칼빈의 주요한 관심사는 성경본문 자체가 청중들에게 투명하게 이해되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칼빈은 자신의 설교에서 교부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이유에서 그는 또한 성경의 의미와 중요성을 확증하기 위하여 다른 보조적인 자료를 활용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였다. 다만 그는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고 의미를 밝혀 나아가는 분석적인 방법에 만족하였다. 칼빈은 또한 성경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그의 확신 때문에 그는 자신의 설교나 신학에서 종종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었다.” 57)

예를 들어,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행함은 서로 상치되는 것으로 여겨져 난해하다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종윤 목사에게 이것은 전혀 상충되는 진리가 아니다. “성경은 절대로 서로 일치되지 않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58) 이종윤 목사는 ‘신행일치’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야고보서 2장 14-26절을 강해하면서 야고보가 비판한 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며 ‘허탄한 믿음’임을 밝힌다.

“그렇다고 야고보가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소위 믿음이라고 말하면 자동적으로 구원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 것입니다.” 59)

이어 이종윤 목사는 야고보가 말하는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밝힌다. 이후 야고보는 잘못된 믿음을 비판할 뿐 아니라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데,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 역시 예수님의 말씀(마 7:20)과 사도 바울의 글(갈 3:7; 딤후 1:16; 골 1:10)과 일치한다. 뿐 만 아니라 야고보는 도리어 아브라함, 라합과 같은 구약의 인물들의 참 믿음을 말하고 있다. 성경 인용을 통한 설교의 결론에서 이종윤 목사는 바울과 야고보의 근본적인 일치를 말한다.

“따라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신앙과 교훈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바울은 아무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며, 야고보는 아무도 사랑의 행실이 없이 자기 구원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0)

성경의 직접 인용을 통하여 이종윤 목사는 성경의 난해 구절들을 효과적이며 평이하게 풀어 청중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종윤 목사 설교의 간결함과 명료함은 단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종교개혁적 원리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같은 원리에 입각해 있더라도 설교는 얼마든지 복잡해 질 수 있다. ‘성서를 성서로’ 해석하는 원리 외에 그의 설교의 간명함과 분명함은 진지함과 예리함을 동반한 그의 지적 능력과 학식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종윤 목사는 학문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학력은 ‘사변적 신학’이나 ‘과괴적 신학’ 혹은 ‘신학을 위한 신학’을 위함이 아니라 성경의 뜻을 주해하고 전하는 데에 있다.<sup>61)</sup> 그런 의미에서 그는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사역자’이다.

“만약 무엇보다 먼저 학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사역자가 결코 되지 못할 것이다.”<sup>62)</sup>

성경에 관한 주석과 학문적 서적이 방대하게 출판되는 오늘날에 설교의 내용을 채우기보다 어려운 것은 설교의 구성과 형식이다. “원래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은 내용으로 첨부되는 게 아니라 형식 속에 침전되는 법”이라는 격언은 오늘날의 설교자가 새겨들을 만하다. 이종윤 목사는 자칫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을 구조화된 형식 속에서 간결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 준다. 이런 복잡한 내용을 간결한 형식에 담아 분명하게 전달하는 설교들은 설교집 『십계명』에 주로 담겨 있다. 그 중 1, 6, 7, 10의 구조적 통일성을 다음과 같이 도표화 할 수 있다.<sup>63)</sup>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설교들은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통일성 있는 논리의 전개를 보여준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다룬 설교<sup>64)</sup>는 위와 같은 논리적 구조를 갖춘 설교의 전형을 보여준다.

설교의 도입부에서 설교자는 다른 계명들과 6계명 사이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할 후 6계명이 불교의 ‘살생하지 말라’는 말과 전혀 다른 계명임을 확인해 준다. 6계명은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로 티르싸카’ 곧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종윤 목사는 영어성경의 “Thou shall not kill”의 번역이나 “Du sollst nicht toten”이라고 번역한 독일어성경보다 한국어번역이 더 잘 번역되었다고 말한다. 이후 그는 제6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주해한다. 그에 따르면 6계명의 핵심적 의미는 “생명의 존엄성을 알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 받은 피조물인 인간이기에 그 생명은 존엄하다.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존엄성의 근거가 된다. 여기서 그의 하나님 중심 사상이 다시 한 번 확연히 드러난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생의 경외’라는 사상을 주장하여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6계명은 생을 경외하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sup>65)</sup>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생명은 동물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sup>66)</sup>

6계명의 올바른 뜻을 해명한 후에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 뜻에 비추어 6계명

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해한다. 6계명의 올바른 뜻과 금하는 것을 해명하고 난 후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계명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풍성해 준다는 점을 부각한다. 결론은 지금까지의 설교를 간략히 요약하고 알고 믿은 바를 실천하라는 권고로 끝을 맺는다.

이종윤 목사 설교는 흔히 말하는 대지 설교, 연역적 설교, 이성적 설교로 구분될 수 있다. 이종윤 목사는 그런 종류의 설교들이 가진 장점들을 극대화하였다. 곧 이종윤 목사 설교의 로고스는 간결함과 명료함, 그리고 깊은 학식과 영성에서 가능한 평이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우선 그가 사도적 설교의 모범을 따르며 성경 해석의 종교개혁적 원리,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에 입각한 성서 주해의 결과이다. 그는 성경이 결코 난해하지 않으며 그 뜻이 반드시 밝혀지도록 되어 있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성경관을 받아들인다. 또한 성경이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지녔다고 믿는다. 이러한 성경관 위에서 이종윤 목사는 종교개혁적 해석원리로부터 강해를 시도한다. 성경으로 성경을 풀이하는 이 방식은 설교를 설교자의 사상이나 세대의 조류로부터 벗어나 성서의 가르침 안에 머물게 할 뿐 아니라 성서의 권위를 통한 설득력을 높인다.

한 편, 이종윤 목사 설교의 탁월한 로고스는 그가 설교를 구조화 하는 곳에서 드러난다. 그는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라서 기존의 이해와는 달리 무엇을 가르치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후 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한지를 알리고 신행일치(信行一致)를 강력히 권고한다.

## VI. 이종윤 목사 설교의 파토스

파토스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로 청중의 감정적인 면에 호소하여 청중의 의견을 바꾸거나 결정하도록 호소하는 수사학이다. 화자가 청중들에게 불러일으키길 원하는 감정은 여러 종류가 있다. 부끄러움과 공포, 적대감과 분노, 시기와 경쟁심, 멸시 등의 부정적 감정이 있는 반면 당당함과 자신감, 호의와 관용, 양보와 감탄 등의 긍정적 감정도 있다. 이 양 편의 감정 모두 청중들 스스로가 의견이나 태도를 바꾸는 데에 영향을 끼친다. 이종윤 목사의 설교 역시 청중들에게 일정한 감정이나 반응을 이끌어 내려는 수사학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이종윤 목사 설교의 파토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청중들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해명하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종윤 목사는 설교의 청중들을 향하여 재차 강조하여 이른바 ‘신행일치’(信行一致)를 외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할 그런 새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사람이 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이 거룩한 삶은 도덕적인 삶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믿은 대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 이것을 신행일치라고 합니다.

언행일치가 아니고 신행일치입니다. ...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나 혼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패자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생겨지게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 되는 고로 하나님께 범죄 하는 것이 됩니다.” 67)

이종윤 목사에 따르면 신앙인은 ‘천국시민’으로서 가정, 교회, 사회, 국가에서 살아갈 때 믿는 바를 행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천국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신앙인을 향한 하나의 정언명법(categorical imperative)이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의무를 뜻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행동하려는 의무를 촉발한다.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 돈, 권세, 명예라는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68) 그러나 이종윤 목사는 한국 신앙인의 현실이 ‘신행일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정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사분의 일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그들의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는 제2차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할 때다. 과거의 부흥하던 때가 있었던 중요한 특성을 다시 찾아야 한다. 그것은 회개와 영적 각성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닫힌 영을 각성케 하사 주님께로 돌아오는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 때 부흥 운동은 시작된다. 그것은 수적 부흥 뿐 아니라 도처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사회를 밝게 할 것이다. 성화된 성도들이 사회에 충격을 주는 변혁을 가져올 때에 말과 구호로만 갱신, 혁신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69)

그는 청중들의 자신들의 삶에서 돌이켜 신행일치의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회개’와 ‘영적 각성’은 이종윤 목사가 그의 설교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곧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 청중들에게 영적 각성의 촉구가 이종윤 목사 설교의 주된 파토스 수사학이다. 이와 같이 회개에 집중하는 그의 설교는 사도적 설교의 모범을 따른 것이다. 이종윤 목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제5장 삼 천명을 구원한 설교”와 두 번째 설교 “제8장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서 그 설교들이 죄의 문제 및 회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한다.70)

베드로의 “삼천 명을 구원한 설교”는 “설교의 모델이다. 초대 교회의 첫 번째 설교요 가장 위대한 사도의 설교며 그 결과 큰 축복의 열매가 있었던 이 설교를 우리도 배워야 한다. ... 이 설교는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이치에 맞는 설교였다.”71) 베드로는 구약 중 3개의 본문을 뽑아 강해하며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했다. 이것을 선포할 때 어떤 두려움도 없이 사실을 사실로 말하였다. 이종윤 목사는 이러한 설교를 설교의 모델이라고 불렀다. 그 후 그는 이 모범적인 설교가 청중들에게 가져온 반응을 살핀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경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면서 두려움 없이 이치에 맞는 설교를 외칠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며 회개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거대한 회개운동이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와 과감하게 이치에 맞는 설교를 할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72)

다시 말하면, 이종윤 목사는 모범적인 설교가 불러일으키는 청중들의 파토스는 죄에 대한 회개라고 성경에 근거해 단언한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대해 이종윤 목사는 이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 설교인 동시에 ‘죄 문제를 다룬 설교’이며 ‘회개를 재촉하는 설교’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설교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우리는 오늘날 설교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고 외쳐야 한다.”(73)

이종윤 목사는 회개와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저주와 비극에 청중들이 눈을 뜨기를 원한다. 그는 먼저 인간의 시기와 하나님의 질투를 구분한 후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74)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엄정하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다. 그러나 그 심판은 엄격하며 철저하다. 이를 잘 보여준 설교가 호세아서 5장 1-15절을 본문으로 하는 “오랜 기다림”이라는 설교이다.(75)

설교의 제목은 ‘오랜 기다림’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불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지를 꼼꼼하게 다룬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좀 벌레 같은 심판”, “사자 같은 심판”, “어두움의 심판”을 내린다고 주해한다.(76) 하나님은 또한 ‘집진적으로 심판’하시며, ‘경고장을 보내’ 심판을 알리시며 징계하시는 분이다. 청중들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의 설교는 이와 같이 끝난다.

“목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말씀을 많이 들었든지 적게 들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질 때 우리의 양심과 속사람이 말씀을 예민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셨는데도 그것을 멀리 떠나는 인생, 율법을 멀리 떠나는 인생에게 참 회개가 없이는 재앙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노란딱지를 받고도 각성하지 않으면 빨간 카드가 주어질 때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돌이켜야 합니다.”(77)

심판의 대상은 물론 개인만이 아니다.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 살이 썩으며”, 서로 간의 미움과 다툼으로 일삼아 복을 상실할 것이다. 심판은 임박했으며, ‘죽음의 심판’이 가차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종윤 목사는 아모스서 9장 1-15절을 본문으로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설교에서도 심판에 대한 강조를 잃지 않는다. 설교 제목은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그 내용의 3/4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평강과 축복을 기대하는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며 “반역자의 결국은 심판이고 저주”뿐이다. “칼로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입니다.”(78) ‘치유’와 ‘위로’의 설교가 주종을 이루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심판’의 설교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생각에 대해 이종윤 목사는 칼빈의 다음과 같은 말로 대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귀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잠시 동안이라도 성경의 증거들이 분명히 입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신의 완고함이 용납될 만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이 알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이다.”(79)

선지자, 사도, 그리고 종교개혁자와 함께 이종윤 목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외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sup>80)</sup> 이시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심판 선언을 취소하고, 죄 지은 백성을 돌이켜 자비를 허락하실 수 있다. 선지자로서 요나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참으로 순종하는 일 뿐이다. 주권을 가지고 자비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선지자는 자신의 빗나간 심판 선언이 가져오는 불명예에 개의치 않아야 한다.<sup>81)</sup>

이종윤 목사는 청중들에게 회개와 영적 각성,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의 파토스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이로부터 나오는 신앙인의 확신과 자신감, 관용의 정신을 목적으로 한다.

청중에게 유발되는 순종을 비롯한 적극적인 파토스는 주로 이종윤 목사의 에토스로부터 전해진다. ‘이종윤 목사’라는 화자의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확신에 찬 열정, 거침없는 선포, 자신감과 순종의 에토스가 청중들에게도 동일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청중들은 그가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같이 당당해 하며, 자신감에 찬 그의 어조를 통해 동일한 자신감을 갖고 싶어 한다. 그의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통해 화자가 진실을 전달한다고 느끼며 그가 전달하는 말에 믿음을 갖게 된다. 그의 로고스 역시 청중들로부터 확신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이종윤 목사가 청중들에게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파토스를 창출하는 수사학적 방법을 이른바 ‘신앙의 삼단논법’<sup>82)</sup>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수사학에서 구분하는 논증법 중 연역의 대표적인 예는 삼단논법이다. 그러나 이 삼단논법은 연설에서 기계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로 확장되거나 생략된 형태로 등장한다. 이 중 이종윤 목사의 논증에는 생략 삼단 논법이 주로 사용된다. 생략 삼단 논법은 불완전한 삼단 논법, 곧 전제들 가운데 하나가 결핍된 논법이다. 예를 들어 정통적인 삼단논법이 “대전제 -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전제 -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결론 -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식으로 이어진다면 생략 삼단 논법은 “신들조차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하니 인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라는 식이다. 여기서 생략된 전제를 복원시키면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대전제 - 인간은 신보다 열등하다; 소전제 - 그런데 신들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결론 - 그러므로 인간 또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곧 여기서 ‘인간은 신보다 열등하다’라는 대전제가 생략되어 있는 셈이다. 대전제의 생략은 사유의 차원이 아니라 언어적인 표현의 차원과 수사학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청중들은 화자가 생략한 부분을 스스로 복원함으로써 화자의 논증에 참여하게 된다.<sup>83)</sup>

이종윤 목사의 생략 삼단 논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청중들로부터 재구성하도록 초청한다. 이를 통해 청중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재차 확인하며 굳게 하도록, 곧 믿음으로 들어서게 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생략 삼단 논법은 청중들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스스로 동의하고, 긍정하게 한다.

“혹자는 21세기를 살면서 아직도 십계명을 지켜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무후무 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꼭 지켜야 합니다.”<sup>84)</sup>

위에서 발견되는 생략 삼단 논법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생략된 대전제, 그래서 청중들이 스스로 채워 넣어야 하는 대전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이다. 이를 완전하게 재구성하면,

“대전제 -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소전제 -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론 -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가 된다. 청중들은 생략된 삼단논법의 대전제를 재구성하면서 스스로 대전제를 승인하거나 더욱 강화한 형태로 받아들이게 된다.<sup>84)</sup> 이와 같은 신앙의 삼단 논법은 의심과 회의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든다. 다음과 같은 논법이 대표적이다.

“예수님이 복되시다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고난과 시험, 절망이 온다 해도 복되다 할 것이다.”<sup>86)</sup>

이 논법을 재구성하면, “대전제 - 예수님은 복되시다; 소전제 -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결론 - 그러므로 우리는 복되다”가 된다. 이 때 우리가 흔히 ‘복’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고난과 시험, 절망은 ‘복’과 전혀 관계없는 것 혹은 새롭게 정의된 ‘복’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러한 신앙의 삼단 논법 앞에서는 신앙을 흔들만한, 의심을 생기게 하는 어떤 요소도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 VII. 결 어

이종윤 목사는 예언자와 사도, 그리고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설교적 전통에서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하며 어떤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없이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언자를 보며, 그가 믿고 아는 바를 증언하는 데에 뒤따른 논쟁이나 비난의 목소리에 개의치 않는 곳에서는 사도의 자세를 본다. 복음의 진리를 알리기 위해 복음의 적들을 향해 공격하며, 더 많은 양들의 풍성한 생명을 위해 말씀으로 헌신하는 곳에서는 살아 있는 종교 개혁가와 마주치게 된다. 그는 신앙의 지속적인 일관성, 진리를 향한 열정, 잘못된 것에 대한 격렬한 의분, 학자적인 좋은 분별력, 하나님 앞에 인간적 한계에 대한 겸손 등을 보여주는 에토스 수사학의 절정을 구가한다.

대지 설교, 연역적 설교, 이성적 설교로 구분될 수 있는 이종윤 목사 설교의 로고스는 간결함과 명료함, 그리고 깊은 학식과 영성에서 가능한 평이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그가 사도적 설교의 모범을 따르며 성경 해석의 종교개혁적 원리,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에 입각한 성서 주해의 결과이다. 더 나아가서 그의 간결함은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온다. 분명한 진리에 마주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하게 외칠 수 없다. 그는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성, 그리고 가독성을 믿으며 설교자의 사상이나 세대의 조류로부터 벗어나 성서의 가르침 안에 자신의 설교를 머물게 한다. 이종윤 목사는 사변을 늘어놓거나 일체의 학문적 잡담에 빠지지 않고 설교를 간명하게 구조화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다. 그는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라서 기존의 통념에서 무엇이 수정되고, 또 무엇이 더욱 깊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제시한다.

이종윤 목사가 청중들에게 불러일으키기를 원하는 파토스는 예언자들, 사도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목표와 일치한다. 곧 회개와 영적 각성,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심판보다 더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이에 대한 감격과 감사이다. 그의 설교는 청중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없는 믿음, 참된 순종, 어떤 의심도 없는 순전한 신앙의 기쁨을 갖도록 노력한다. 이는 복음이 궁극적으로 두려움과 저주가 아니라 기쁨과 구원을 선포하는 은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종윤 목사의 수사학을 우리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파레시아’의 수사학의 한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종윤 목사의 설교는 또한 정통적 한국교회 설교의 모범과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설교자도 완벽할 수 없고, 어떤 설교도 완전하지는 않다. 가령 이종윤 목사의 설교도 본질적으로 이성적 설교이며 연역적 설교인데, 이런 종류의 설교는 일반적으로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약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그의 설교의 다양한 덕목은 이러한 약점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이종윤 목사는 칼빈을 수시로 거명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칼빈주의자’는 아니다. 실상 그는 ‘칼빈주의자’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칼빈이다. 아니 칼빈 스스로가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그 시대의 예언자로 생각했듯이 이종윤 목사 그도 이 시대의 예언자이다. 진리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신앙과 학식에서, 하나님의 소유인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자 하는 열정과 예언자적 분노에서, 또 그 학자적 간결함과 명료함에서 그는 이 시대의 칼빈이다. 칼빈이 무엇보다 설교자였듯이, 이종윤 목사는 우리가 감탄할 만한 다른 수많은 항목들을 갖고 있으나, 그를 대표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이미지는 ‘설교자’이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 ‘설교자 이종윤’이라는 이름으로 각인될 것이다.

- 1) R. Stauffer, “칼빈, 존(Calvin, John: 1509-1564),” 윌리엄 윌리몬·리차드 리스처 (편) 『설교학 사전』 (서울: CLC, 2003), 640.
- 2) 이종윤, “오늘의 위기와 교회의 사명,” 『설교와 목회』 이종윤 (편) (서울: 요단출판사, 1996), 7.
- 3) 위의 책, 10.
- 4) 간략하게 정리된 수사학의 기본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는 박성창, 『수사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0)을 참조하라.
- 5) George A. Kennedy, Classical Rhetoric and Its Christian and Secular Tradition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0). 케네디의 이 작품은 성서학 분야에서의 수사학적 연구를 촉발하였다. 이후로 수사학적 연구는 신, 구약을 막론하고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 6). 최근 신약학에서의 수사학 비평에 대해서는 Carl Joachim Classen, Rhetorical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Tubingen: Mohr Siebeck, 2000)을 참조하라.
- 7) Ben Witherington, “Rhetorically Writing: the New Testament Authors Used Every Tool of the Trade to Influence Their Listening Audiences,” Bible Review 18 (6, 2002): 14, 62.
- 8) 수사학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 곧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말을 통한 설득의 기술” 혹은 “설득력 있는 담화의 이론”이다. 박성창, 앞의 책, 21.
- 9) James L. Kinneavy, Greek Rhetorical Origins of Christian Faith: An Inquiry (New York : Oxford Univ. Press, 1987). 저자는 이 책에서 신약에 나타난 믿음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이 고대 수사학의 설득으로부터 기원했을 가능성을 연구한다.

- 10) ‘버튼 L. 맥, 『수사학과 신약성서』 유태엽 옮김 (서울: 나단, 1993).
- 11) ‘논거발견술’은 ‘주제설정’으로도 번역된다. 현경식·이성호, 『수사학적 성경 해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성서연구사, 1996), 71-72. 박성창이 번역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반면, 현경식과 이성호는 이에 대해 침묵한다. 수사학적 비평방법을 사용하는 본 글의 취지를 살려 ‘논거발견술’이라는 번역어를 택한다.
- 12) 박성창, 앞의 책, 60.
- 13)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가 설득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자의 인품은 그를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로 만들 수 있게끔 이야기될 때 설득의 원인이 된다. 대체로 우리들은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더욱 쉽게 신뢰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지식의 범주를 벗어난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때 우리들은 믿을 만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중략- 우리는 역시 화자의 인품이 모든 설득의 수단 중에서 가장 막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Rhetorique, I. 1356a).” 위의 책, 47에서 재인용.
- 13) 아리스토텔레스는 화자가 드러내야 인품 혹은 도덕적 성격을 크게 3가지, 곧 좋은 분별력(phronesis), 미덕(arete), 선의(eunoia)로 나눈다. 미덕의 요소로 그는 정의감, 용기, 자기 절제, 지혜, 관대함 등을 들고, 선의는 우정(friendship)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현경식·이성호, 앞의 책, 79-80.
- 15) 이종윤 목사의 에토스로 이 논문은 ‘선지자로서의 설교자 이종윤’을 제시한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점은 이러한 분석이 결코 이종윤 목사 내면에는 선지자적 모습이나 열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선지자인 양’ 하며 설교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로서의 설교자’라는 설교자의 에토스 분석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수사학적 판단이다.
- 16) 현경식·이성호, 앞의 책, 80.
- 17) 가상적인 예증이라고 해서 역사적인 예증보다 그 호소력이 덜 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처럼’”과 같은 표현은 허구적인 예증이지만 역사적인 예증 못지않게 호소력 있는 것이다. 역사적인 예증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데니스는 참주가 되려고 합니다. 호위병들을 요구하니까요. 예전에 참주가 되려고 했던 피시스트라테스도 그랬습니다. 그 역시 호위병을 요구했으니까요.” 올리비에 르불, 『수사학』 박인철 옮김 (서울: 한길사, 1999), 33.
- 18)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1967 ed., s.v. “parrhsia, parrhsia,zomai,” by Heinrich Schlier.
- 19) 막 8.32; 요 7.4, 13, 26; 10.24; 11.14, 54; 16.25, 29; 18.20; 행 2.29; 4.13, 29, 31; 28.31; 고후 3.12; 7.4; 엡 3.12; 6.19; 빌 1.20; 골 2.15; 딤후 3.13; 몬 1.8; 히 3.6; 4.16; 10.19, 35; 요일 2.28; 3.21; 4.17; 5.14.
- 20) John J. Kilgallen, “The Use of Psalm 16:8-11 in Peter's Pentecost Speech,” Expository Times 113 (2, 2001): 47-50.
- 21) 오순절과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William H. Willimon, “‘Everyone Whom the Lord Our God Calls’: Acts 2 and the Miracle of Pentecost Preaching in a Multicultural Context,” Journal for Preachers 25 (4, 2002): 3-10을 참조하라.
- 22) ‘Agrammatoi’의 어원적 의미는 ‘글자를 모르는’이다. 그러나 유대교적 맥락에서 이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idotai’는 전문가나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하는 사

람, 흔히 유대교적 율법의 전문가와 비교할 때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Thomas J. Kraus, “‘Uneducated’, ‘Ignorant’, or Even ‘Illiterate’? Aspects and Background for an Understanding of Agrammatoi (and Idiotai) in Acts 4.13,” *New Testament Studies* 45 (3, 1999): 434-449.

23) 파레스시아의 동사형은 바울 외에 아폴로에게만 적용된다(18.26). 아폴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공중 토론을 통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논증하는 장면에서 파레스시아를 보여준다.

24) R. Stauffer, 『칼빈의 설교학』 박건택 (편역) (서울: 나비, 1990), 63에서 재인용.

25) 이종윤, 『십계명』 (서울: 필그림 출판사, 2002), 63.

26) 이종윤 목사의 설교는 모범적인 강해설교이며, 그 자신도 강해설교의 우월성을 지지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강해 설교란 주석이나 일반적 해설과도 다르다. 오히려 그들을 합쳐놓은 즉 본문을 주석하여 그 빛을 가지고 시대와 상황적 문제를 풀어내어 그 답을 얻어내는 이중 작업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강해 설교자는 성경을 철저히 주석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이들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사와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 그리고 심오한 신학적, 역사적 안목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강해설교야말로 지고한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심오한 신앙 경륜의 집대성이라 해도 좋을 것 같다.” 이종윤, 『요한복음 강해 3』 (서울: 필그림 출판사, 1996), 3.

27) 이종윤, 『십계명』, 58-59.

28) 이종윤 목사의 노동관과 직업윤리에 대해서는 이종윤, 『크리스찬의 신앙 곡선』 (서울: 필그림 출판사, 1996), 140-57을 참조하라. 이 글의 목차는 그의 노동관에 대한 생각을 간략하게 제시해 준다. 제목: 크리스찬의 직업윤리: 1. 직업(노동)의 정의 (1) 노동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며 의무이다. (2) 하나님의 소명이다. (3)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다. 2. 신약 성경에 나타난 노동의 교훈 (1) 열심히 일하라. (2) 부를 위하여 일하지 말라. (3) 빈부의 차이를 인정하라. 3. 고용주와 고용인에 대한 교훈 (1) 고용주는 고용인을 착취하지 말라. (2)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유익이 되라. (3) 좋은 주인에게 책무를 다하라.

29) 재차 부언하자면 이종윤 목사가 ‘순수하고 솔직한’ 또 ‘가차 없이 혹은 꾸밈없는’ 에토스를 가지고 청중들에게 나타난다는 말은, 그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려고 한다는 위선을 지적하거나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지 수사학적 판단이다.

30) 이종윤, 『에베소서 강해』 (서울: 필그림 출판사, 2001), 224.

31) 전쟁과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흔히 말하지 못하는 설교를 듣는다. “성경은 전쟁과 사형 제도를 인정합니다. 요즘 교회를 필두로 많은 기관에서 사형 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형 제도를 허락하고 악을 향한 정당한 전쟁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종윤, 『십계명』, 90-91. 이 인용부분 역시 제6계명에 대한 그의 전체적인 설교 안에서 분명한 논리와 설득력을 갖는다.

32) Sermon. Tit. 2:15.

33)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찬송을 결코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종윤, 『십계명』, 21.

34) 위의 책, 22.

35) 이종윤, 『소선지서』 (서울: 필그림 출판사, 1996).

- 36) 위의 책, 3-4.
- 37) 위의 책, 276-80.
- 38) 윌리엄 윌리몬·리차드 리스처 (편), 앞의 책, 645.
- 39) 이종윤, 『설교와 목회』, 9.
- 40) 이종윤, 『에베소서 강해』, 186.
- 41)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대한 그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종윤,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251-53.
- 42) 이종윤, 『십계명』, 18-19.
- 43) 이종윤, 『설교와 목회』, 8-9.
- 44) Inst. IV. i. 5.
- 45) 이종윤,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259.
- 46) R. Stauffer, 『칼빈의 설교학』, 68-71.
- 47) 여기서 다루지 않는 성경 해석의 특징은 ‘용기 있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악한 인간성에 대해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항을 이미 다루었다.
- 48) 위의 책, 68.
- 49) R. Stauffer, 『칼빈의 설교학』, 69. “칼빈의 설교 스타일상의 특징은 단순성, 간결성, 명료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칼빈은 설교에서 예화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은유와 비교 그리고 상상력을 사용하는 속담, 이미지, 그리고 변증적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정인교, 『설교학 총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429.
- 50) Comment. Gal. 4:22. 거친 논쟁을 겪었지만 성경이 명료하며 설득력이 있고,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은 루터, 쾰링글리 등을 포함한 종교개혁가들의 공통적인 주장이었다. A. E. 맥그래스, 『종교개혁사상입문』 박종순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92), 178-87.
- 51) 이종윤, “이종윤의 성경 난해 구절 해설,” 『기독교 연합신문』, 제784호 (2004년 6월 20일).
- 52) 위 신문에 연재되었던 글들은 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이종윤, 『성경난해구절 해설』 (서울: 필그림 출판사, 2004), 5. 이 책은 “성경 영감설에 입각한 전통적 신학 해석을 고수”한다.
- 53) 이종윤, 『산상보훈 - 천국시민윤리』 (서울: 필그림 출판사, 2000).
- 54) 이종윤, 『신약개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3), 21-22. 칼빈은 계시의 본질적 통일성을 주장한다. 곧 그는 옛 계약보다 새 계약 하에서 나타난 계시가 더 우월하다고 보지만 구약의 계시가 모두 그리스도께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옛 언약의 형식들 아래서 참된 기독교적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계시가 통일되어 있다고 말한다. 로널드 S. 윌레스,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정장복 옮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53-71.
- 55) 이종윤, 『산상보훈』, 42-44.
- 56) 이에 대한 이종윤 목사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종윤, 『사도행전』 (서울: 필그림 출판사, 2001), 46.
- 57) R. Stauffer, "칼빈, 존(Calvin, John: 1509-1564)," 644.
- 58) 이종윤, 『야고보서 강해』 (서울: 필그림 출판사, 1996), 165-84.
- 59) 위의 책, 167.
- 60) 위의 책, 173.

- 61) 그는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지에서 많은 연구를 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설교집 외에 『신약개론』, 『신구약개설』, 『신약성경 헬라어 강독』 등의 뛰어난 학문적 저술들도 남겼다. 특히 바울과 역사적 예수의 문제를 다룬 Paul and the Historical Jesus - The Problem of Paul's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Jesus : A Historico-Critical Study of the Jesus-Paul Problem (Seoul: Pilgrim Pub., 1998)는 한국신약학계에서 독보적인 역작이다.
- 62) Sermon. Deut. 5:23-27.
- 63) 이외의 다른 설교는 다른 방식으로 통일된 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위의 설교들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 64) 이종윤, 『십계명』, 82-95.
- 65) 위의 책.
- 66) 위의 책.
- 67) 이종윤, 『에베소서』, 219-20. 이곳 외에도 ‘신행일치’는 이종윤 목사의 주요한 신앙적·신학적 개념이다. 이종윤, 『산상보훈 - 천국시민윤리』, 39; 『소선지서 강해』, 57.
- 68) 이종윤, 『산상보훈』, 12.
- 69) 이종윤, 『로마서 II - 제5장~제8장』 (서울: 필그림 출판사, 1996), 213-214.
- 70) 이종윤, 『사도행전』, 42-50; 62-67.
- 71) 위의 책, 42. 이러한 이종윤 목사의 논지는 ‘사도들의 설교’를 파레스시아의 설교로 보고 그 특징을 분석한 이 논문의 논지와 부합한다.
- 72) 위의 책, 50.
- 73) 위의 책, 66.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교는 이종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소선지서 강해』, 101-107.
- 74) 이종윤, 『십계명』, 36.
- 75) 이종윤, 『소선지서 강해』, 38.
- 76) 위의 책, 41-43.
- 77) 위의 책, 141.
- 78) 위의 책, 180.
- 79) Inst. I. xviii. 4.
- 80) 이종윤, 『소선지서 강해』, 221-228.
- 81) 위의 책, 227.
- 82) 이 내용은 ‘이종윤 목사 설교의 로고스’ 단락에서도 다룰 수 있고, 실제로 이종윤 목사 설교의 로고스를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이하 논의의 초점이 그러한 로고스를 사용하여 이종윤 목사가 청중들에게 어떤 파토스를 불러일으키려 했는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종윤 목사 설교의 파토스’를 다루는 이 장의 주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83) 박성창, 앞의 책, 61-67.
- 84) 이종윤, 『십계명』, 13.
- 85) 성경 자체가 생략된 삼단 논법을 통하여 논증함으로써 청중들에게 확신을 더하기 때문에 이종윤 목사가 생략 삼단 논법의 수사학적 효과를 자각하고 사용했는지 여부는 이 논의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 86) 이종윤, 『산상보훈』, 12.

표 1

차 례	제 목	인용회수	쪽수		
제3강	애용하는 자가 받는 위로	15	6		
제4강	땅을 기업으로 받은 온유한 자	13	5		
제6강	세 가지 덕성	19	8		
제7강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	19	8		
제10강	그리스도와 성경	13	7		
제15강	이혼과 재혼	8	7		
제16강	진리를 말하라	10	7		
제17강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가?	12	7		
제18강	원수를 사랑하라	12	8		
제19강	온전한 성도	11	6		
제20강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어떻게 투자할까?			11	5
제22강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버지다	10	6		
제24강	나라가 임하시오며	7	3		
제28강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	13	6		
제30강	누가 당신 소유물의 주인인가?	8	6		
제33강	영적 분별력	7	4		
제34강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9	7
제39강	반석 위의 집	10	7		
총계	18편의 설교	207	113		

제1계명 서론	I.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	II. 제1계명이 금하는 것	III. 제1계명이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	결론
제6계명 서론	I. 생명의 존엄성을 알게 한다	II. 제6계명이 금하는 것	III. 제6계명은 기독교인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결론
제7계명 서론	I. 제7계명이 요구하는 것	II. 제7계명이 금하는 것	III. 당신은 간음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결론
제10계명 서론	I. 제10계명이 명하는 것	II. 제10계명이 금하는 것	III.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결론

김 세 광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예배학

< 목 차 >

I. 서 론

II. 설교 연구의 자료와 주제 분석

III. 설교 제목에 나타난 이종윤 목사 설교의 특징

IV. 이종윤 목사 설교의 두 축: 성서예의 봉사와 한국 교회의 갱신

V. 웅변가, 복음전도자, 목양자, 예언자로서의 설교가

VI. 설교의 기초와 목표

VII. 한국 교회와 사회와 세계를 향해 행동하는 설교

I. 서 론

이종윤 목사는 설교 방법론과 신학, 그리고 목회적 탁월성에 있어서 선교 2세기를 지나서 한국교회에서 주목하게 되는 설교가다. 그것은 현대 도시교회의 신선한 목회의 모델이 된 할렐루야교회를 개척하여 급성장을 이룬 교회성장가로 알려질 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의 하나인 중현교회의 목회자로 부임하여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부흥사이기도 하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의 교수로, 전주대학의 총장으로 학문적인 큰 업적을 쌓은 신학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가들이 목회자인데 반해, 이종윤 목사의 경우는 신학자 출신의 설교가로서 개척부터 시작하여 10년의 세월 안에 서울교회라는 대형교회를 이룬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의 성서적 통찰과 충실한 목양자로서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그의 빛나는 설교는 한 교회의 회중들 뿐 아니라,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바라는 설교의 모델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기에, 한국교회사학연구원을 통해 한국의 10대 설교가의 한 분으로 선정된 것이리라.

성서를 성실하게 바라보면서, 성서에 철저히 봉사하는 이종윤 목사의 설교는 이제껏 성장과 형통함과 치유를 목표로 하였던 기존의 설교와 크게 구별이 되면서,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던져 주었고, 새로운 설교에 갈급해있던 목회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게 된다. 이종윤 목사가 시작한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목회자세미나에 300여명의 목회자들이 모이는데, 이 세미나의 중심이 성서연구인 점이 다른 목회자세미나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이다.

본 연구는 이종윤 목사의 설교사역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분류하고 관찰하면서, 특징을 정리하고, 그의 설교를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한편으로는 설교가로서 이종윤 목사의 설교적 형태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신학적 전제와 통찰들을 그의 삶과 관련하여 고찰하려는 것이다.

II. 설교연구의 자료와 주제 분석

이종윤 목사의 설교연구는 그의 37권에 이르는 서적부터 시작할 수 있다. 강해설교집 20권,

신학 전문서적 8권, 신앙에세이 5권, 서울교회 10년사 외에 기타 전문서적 3권에 이르는데, 이 책을 성격별로, 출판 연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강해 설교 및 설교 요약집

- 1990 빌립보서 강해 (주일저녁설교모음집). 필그림.
- 1990 소산지서 강해. 필그림.
- 1991 에베소서 강해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월요세미나 모음집). 필그림.
- 1994 야고보서 강해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월요세미나 모음집). 필그림.
- 1995 로마서 강해1권-4권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월요세미나 모음집). 필그림.
- 1995 요한복음 강해1권-4권 (수요설교모음집). 필그림.
- 1995 창세기 강해1권, 2권. 필그림.
- 1996 예수의 비유 (주일설교 모음집). 필그림.
- 2000 크리스찬 지도자들: 여호수아서, 느헤미야서. 필그림.
- 2000 산상보훈 (새벽설교모음집). 필그림.
- 2001 사도행전. 필그림.
- 2002 십계명강해 (주일설교모음집). 필그림.

2) 신학 전문서적

- 1975 Paul and the Historical Jesus (바울과 역사적 예수). 필그림.
- 1983 신약성경 헬라이어 강독. 필그림.
- 1986 교회성장론. 이종윤외 2인 공저. 엠마오.
- 1988 신약개론. 개혁주의 신행협회.
- 1989 신구약 개설. 엠마오.
- 2004 성경난해구절. 필그림.

3) 신앙에세이

- 1993 순례자(신앙칼럼). 필그림.
- 1995 순례자(신앙칼럼). 필그림.
- 1998 순례자(신앙칼럼). 필그림.

4) 기타

- 1983 한국교회의 종교개혁. 이종윤외 5인 공저. 엠마오.
- 1993 한국교회의 진단과 그 처방.
- 1996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 이종윤외 10인 공저. 요단출판사.
- 1997 급변하는 사회와 목회갱신.
- 2001 서울교회 10년사. 필그림.

저자의 성경사랑은 다 알려진 바지만, 위의 책 제목들 중 특별히, 헬라이어강독이란 책의 서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경연구에 정성을 쏟는지를 알 수 있다.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국내외 교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종사하던 중 그들의 고

민을 발견하게 되었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분명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에게도 헬라어를 공부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있다. 번역 성경이 갖고 있는 제한성과 불명료한 점이 있기 때문에...1)

### III. 설교 제목에 나타난 이종윤 목사 설교의 특징

설교에서 설교 제목은 사람의 얼굴처럼 중요한 것으로, 설교자의 본문의 해석의 방향과 초점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설교 본문의 많은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설교자가 선택한 주제와 그것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한 암시가 설교의 제목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설교 제목의 연구는 설교 본문 선택과 함께 빼어놓을 수 없는 자료가 된다. 장기간 설교했던 설교의 본문 연구에서 설교자가 성경 중에 어떤 책에서 어떤 본문들을 주로 선정하는 지, 또한 설교의 제목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을 조사함으로써 설교자의 설교의 목표와 신학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1991년 10월부터 2004년 9월 까지 14년 동안 행했던 이종윤 목사의 주일예배 설교의 제목을 성경별로 분류한 것인데, 이러한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설교자의 성서 신학적 특징과 설교의 강조점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다음은 14년 동안의 이종윤 목사 설교의 제목을 성경별로 분류한 것이다.

구약 = 229회

오경 - 창 27, 출 30, 레 2, 민 4, 신 5

역사서 - 수 10, 삿 3, (룻) 삼상하 9, 왕상하 6, 대상하 4, (에스라) 느7, 에 1

성문서 - 욥 2, 시 63, 잠 6, (전도서) 아 2

대선지서 - 사 16, 램 4, (예레미야 애가) 겔 7, 단 8

소선지서 - 호 2, 율 2, 암 2, (읍) 은 1, 미 3, (나훔), 합 1, 습 1, (학)

(습) 말 1

신약 = 413회

복음서 - 마 64, 막 18, 눅 50, 요 49 = 181 회

사도행전 - 행 32

바울서신 - 롬 52, 고전 13, 고후 10, 갈 8, 엡 30, 빌 17, 골 4, 살전후 7, 딤후 2

딤후 9, 딤후 1, (몬) 히 13 = 166회

공동서신의 - 약 10, 벧전 4, (벧후) 유1, 요한서신 9, 계 10

\* ( ) 괄호는 한 번도 다루지 않은 본문이다.

## 1. 균형있는 설교 본문의 선정

14년 동안 총 642회의 주일예배 설교의 본문을 조사한 결과, 구약이 229회, 신약이 413회로 신약이 65%, 구약이 35%로서 신약 설교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구약의 본문도 35%나 되는데 이는 다른 설교가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2) 신구약 66권을 사용한 것을 조사하면, 구약 39권 중 31권을, 신약 27권 중에서 빌레몬서, 베드로후서를 제외한 25권을 골고루 사용함으로 성서 전체를 전하려는 설교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균형 있게 전하는 설교는 건강한 회중 형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설교자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본문만을 설교제목으로 정하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하기 쉽고, 따라서 회중들이 성서에 대해 편향적 시각을 가질 위험성이 많은 이때에 성서 전체를 균형 있게 전하는 설교는 그만큼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세계교회에서는 설교자의 편식적 선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3년 주기의 성서일과를 정하여 본문을 선정하기도 하는데, 이종윤 목사의 설교에서 그러한 균형 있는 본문선택을 관찰하게 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구약 229회 가운데, 시편이 63회로 구약 본문의 27%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는데, 성도의 삶에 나타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추구하는 설교자의 노력이 엿보인다.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된 본문이 출애굽기(30회)인데,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강조하는 그의 신학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 2. 복음서와 바울서신의 균형

신약성서 412회 중 4복음서가 181회, 바울서신이 166회로 각각 43%, 40%의 비슷한 사용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돋보인다. 이는 예수의 생애와 바울의 해석으로 이루어진 신약성서의 분량을 염두에 둔 것이요, 오랜 동안 설교자의 학문적인 관심사인 이 주제가 결국 ‘바울과 역사적 예수(Paul and the Historical Jesus)’라는 제목의 박사학위논문으로 매듭을 지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 3. 에베소서에 대한 강조

16장 분량의 로마서가 52회 선택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30장 분량의 고린도전후서가 23회 선택된데 비해, 6장 분량의 에베소서가 30회 선택된 것은 설교자의 에베소서에 대한 특별한 강조를 알 수 있게 한다. 에베소서에는 설교자가 바라는 민족과 교회, 가정에서의 성숙한 크리스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 4.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설교

설교 제목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하나님’(76회) ‘예수그리스도’(49회), ‘말씀’ 또는 ‘성경’, ‘복음’(20회) 순으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목표로 하고, 모든 문체의 해결과 대안으로 삼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다음으로 ‘성령’(17회), ‘교회’(15회), ‘그리스도인’(14회), ‘사랑’(13회), ‘십자가’(11회), ‘복’(11회), ‘하나님 나라’(10), ‘믿음’(8), ‘영광’(7), ‘소망’(7) 순으로 사용되었다.3)

#### 5.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인물: 바울, 다윗, 모세

바울, 다윗, 모세는 설교자가 그리스도인 모델로 제시하고 싶은 성서의 인물이다. 이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바울(13회)은 설교자의 신행일치의 삶에 용기와 부담을 동시에 주는 인물로 나타난다. 14년에 걸쳐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한 주일 설교의 제목들을 본문의 순서대로 정리해 보노라면, 바울의 삶의 지평을 향해 가는 설교자 자신의 순례자적 행보를 목격하는 듯하다.

- “전도자의 모델 바울” (행 16:25-34; 1995. 10. 8)
- “받은 사명 위하여” (행 20:17-24; 2001. 10. 7)
- “바울의 인생행로” (행 20:17-35; 1992. 2. 2) (2회)
- “어떻게 살아왔는가” (행 20:17-38; 2000. 7. 16)
- “바울의 양심선언” (행 24:10-23; 1999. 11. 14)
- “난세를 사는 자의 지혜” (행 27:18-26; 1998. 1. 11)
- “광풍 앞에서” (행 27:9-26; 1997. 1. 19)
- “세상을 향한 성도의 책무” (행 27:9-26; 1995. 8. 27)
- “로마로 가는 길” (행 28:11-16; 1999. 7. 11)
- “바울의 평생 큰 소원” (빌 3:10-16; 1998. 7. 19)
-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빌 3:10-16; 1998. 10. 4)
-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위한 투쟁” (빌 3:10-16; 1998. 10. 18)
-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려 하여” (빌 3:10-16; 1998. 10. 11)
-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러 하여” (빌 3:17-21; 1998. 10. 25)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빌 3:17-21; 1998. 11. 1)

#### 6. 제목의 문법적 형태의 다양성

이종윤 목사의 설교 제목에는 일정한 문법적 패턴이 없다. 서술형, 청유형, 명령형, 질문형, 심지어 호격, 한 두 마디의 부사로 구성된 제목들이 골고루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종윤 목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성서의 본문의 한 구절이나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두려워하지 말라’, ‘끝이 났도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등 141회나 된다. 그 중에 명령형의 제목이 62회로 가장 많고, 질문형의 제목도 19회나 된다. 또 호격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는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창 45:1-15), ‘야곱아! 야곱아!’(창46:1-7), ‘대한민국, 나의 조국아’(겔 37:15-28)에서 보는 것처럼 호격을 그대로 설교제목으로 하여 성서와 회중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감동적으로 표현해 준다. 특이한 것은 한 두 마디의 부사구문인데, ‘둘 씩 둘 씩’(막 6:7-13), ‘때가 차매’(요 12), ‘나사로 때문에’, ‘닭 울기 전에’, ‘믿음으로’, ‘할렐루야로’, ‘그 날 이후’, ‘그러나 하나님은’(엡 2:1-10), ‘먼저 할 것은 먼저’(시

119:1-8)의 제목으로 회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강렬한 이미지를 풍기는 제목도 눈에 띈다. 즉, ‘불탄 포도 넝쿨’(겔 15:1-8), ‘신발 끈을 풀기도’(눅 3:15-17), ‘위대한 포물선’(빌 2:5-11), ‘하나님의 지팡이’(출 17:8-16), ‘빈 항아리를 깨뜨려라’(삿 7:15-23) 등 회중들과의 교감을 위해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제목을 정하는 설교자의 노력이 제목에 담겨 있다.

## 7. 가정의 평안과 회복을 위한 설교

“크리스찬의 가정”(엡 5:21-33; 1994. 5. 15)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신6:4-9, 22:8; 1997. 5. 11)  
“가정 복음화”(요1:35-51; 1997. 10. 5)  
“좋은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딤후 1:3-5; 1998. 5. 10)  
“우리 집에 계신 그리스도”(막 2:1-12; 1998. 5. 24)  
“가족을 위한 바울의 기도”(엡 3:14-19; 1998. 7. 12)

## 8. 반복된 설교를 통한 설교자의 강조점

같은 본문으로 같은 설교제목으로 설교한 경우가 50회 있는데, 그 중 3회 이상 반복된 설교도 13회가 된다. 그 중에는 가정의 달을 위한 ‘자녀와 부모’(엡 6장)라는 설교나 맥추절(출 23:14-17)을 위한 절기 설교의 경우가 있는데, 그 이외의 것과 4회 이상 반복된 설교는 설교자의 비전과 사명이 농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첫째, 느헤미야 설교인데, 설교자의 갱신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

“느헤미야의 기도”(느 1:1-11; 1996. 3. 3)  
“모범적인 지도자 느헤미야”(느 1:1-11; 1998. 5. 31)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느 13:1-9; 1995. 12. 3)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느 13:1-3,28-31; 2001. 5. 27)  
“훤방자가 있을지라도”(느 4:1-14; 1996. 6. 30)  
“국가 재건을 위하여”(느 8:1-12; 1999. 3. 7)  
“국가 재건을 위하여”(느 8:1-12)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설교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14, 1993. 12. 19)  
“세상의 빛”(요 1:1-3; 2000. 4. 2)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요 1:1-4,14; 1998. 12. 20)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다”(요 1:1-5; 1998. 12. 13)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다”(요 1:1-5; 2000. 12. 17)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1:1-5; 2000. 12. 24)

셋째,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를 제시한다.

“하나님 나라 시민”(롬 14:13-23; 1992. 11. 29)  
“천국 시민의 삶”(롬 14:13-23; 1994. 10. 2)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롬 14:13-23; 1996. 4. 28)

“세울 것인가 부술 것인가” (롬 14:17-15:2; 1998. 3. 22)

넷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

“부활절에 주신 4가지 명령“ (마28:16-20)

“주님의 대명” (마 28:16-20)

“부활하신 주님의 도전” (마 28:16-20)

다섯째, 제자의 길.4)

“새로운 관계” (눅 14:25-33)

“제자됨” (눅 14:25-35; 1992. 2. 23)

“매일 제자됨” (눅 14:25-35; 1999. 3. 21)

“제자되기 위해 무엇을 지불해야 하나?” (눅 14:25-35; 2001. 9. 2)

#### IV. 이종윤 목사 설교의 두 축:

성서예의 봉사와 한국교회의 갱신

##### 1. 성서에 봉사하는 설교

설교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의 봉사를 전제하고 있는 말이다. 따라서, 설교는 성서적일 때, 바른 설교이다. 성서를 떠난 설교란 상상할 수 없지만, 현대 설교가 설교자의 취향과 회중들의 요구에 집중한 나머지, 설교자와 회중을 위해 성서가 봉사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이다. 이는 바르트가 지적한 설교자의 위기이고, 회중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당연시되어야 할 성서적 설교가 주목받고 회중과 특히 목회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그만큼 현대의 설교가 성서와 간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종윤 목사의 성서지향성은 어느 다른 설교자의 설교보다 철저하다. 그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설교자의 성서중심성에 달려있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우리 강단이 얼마나 성경을 바르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익히느냐에 달려 있다. 5)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에서 오늘의 설교자들이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잡기위해 수많은 시도를 해오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을 때, 그는 한국의 목회자들은 성서에 갈급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것을 위한 사역에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 기천명의 목회자들과 매주 월요일마다 성경강해를 통해 한국교회의 진로를 모색해 왔다. 한국교회 갱신운동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다. 경향 각지에서 오신 동역자들과 함께 야고보서를 연구하는 동안 우리는 지적인 만족과 함께 영적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그것은 강의자의 영력이나 강해기법에서라기보다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중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6)

그의 성서운동이 호소력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성서연구에 대한 열정에다가 그의 학문적 전문성 때문이다. 바울과 역사적 예수에 관한 연구로 신약학 박사학위를 받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던 중에 집필한 많은 저서들 중에 특별히 신약개론은 분량의 방대함이나, 신학적 깊이에 있어서 학계에서 인정받은 책으로 지금까지 쇄를 거듭하며 계속해서 출판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의 36권의 저서 가운데, 30여권이 강해설교라는 점도 그것을 말해준다. 주일예배의 주제별 설교는 책으로 묶여지지 않고, 성서의 각권만 묶여져서 책으로 출판된 것도, 성서에 봉사는 설교를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설교자가 성서에 봉사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복음적 신학 교육의 결과로 설교자 자신의 설교의 정당성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 수도 있고, 복음적인 회중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성서와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서가 설교자에 의해 동원되고 설교자의 아이디어에 썬포터즈(supporters) 역할 하는 것이 흔한 요즘에 설교자가 성서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귀한 일이지만, 진정 성서의 참 가치를 경험하며, 성서에 철저히 봉사하는 설교는 보석처럼 귀하다. 이종운 목사의 설교에서 느껴지는 것은 설교자가 성서에 봉사하는 이유는 성서에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와 인류와 세계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담겨있음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말씀의 오묘함과 깊이 숨겨진 진리를 캐낼 때마다 마치 금맥을 잡은 광부처럼 흥분과 희열을 금치 못한 채 감격과 은혜가 폭발되어 자신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민족과 사회를 새롭게 할 힘을 얻었다. 7)

설교자 자신이 구도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서의 진리를 찾아 인생을 거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따라서, 강해 설교가 그의 가장 선호하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강해설교야말로 지고한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심오한 신앙경륜의 집대성이라고 확신한다. 8) 그의 설교는 그야말로 성서의, 성서에 의한, 성서를 위한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종운 목사의 성서에 대한 봉사적 자세를 보여주는 최근의 책이 있는데, 『성서난해구절해설』의 발간이다. 성서의 무오성을 변증하기위해 253개의 난제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된 이 책에서 이종운 목사의 설교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이 절절히 배어있다.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져가는 성서 비평에 조각나고 누더기가 된 성서를 찢어질세라 조심스럽게 부여잡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저자의 정성과 집중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 2. 회개와 갱신의 설교

이종운 목사의 설교의 또 다른 특징으로 회개와 갱신의 메시지인 점을 들게 되는데, 특별한 점은 이 메시지가 지도자와 목회자들을 향해있다는 점이다. 이종운 목사의 설교에 나타난

사회와 교회 상황 인식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거짓과 위선이 만연한 사회라는 것, 둘째, 물량주의적 교회, 교리수호에 급급한 교회, 부도덕과 부조리 그리고 권위주의적 환상에 젖은 교회 등이다. 그는 한국교회를 시대적으로 진단하면서 50년대는 회개와 치유가, 60년대는 위로와 소망이, 70년대는 성장과 발전이, 80년대는 안정과 연합이 강조되었다면 90년대의 한국교회는 갱신과 성숙이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9) 사회와 교회의 상황에 대한 그의 판단은 역사적 안목 특히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에 대한 연구에서 얻는 통찰과 교훈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예언자적 확신으로 강하게 전하는 데서 그의 메시지의 진가가 드러난다. 회개와 갱신의 제일의 대상과 주체자는 목회자요, 교회의 지도자다. 목회자의 갱신 없이 교회의 갱신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회개 메시지의 핵심이다.

신학과 신앙의 괴리현상은 위험 수위를 넘어섰으며, 교리적으로는 고향압증에 걸려있고 행위에는 빈혈증에 걸린 중환자가 되었으면서도 위선적이고 가증된 형식과 제도와 물량주의적 수만을 자랑하고 평안하다하고 있지 않은가. 영적 참회와 경건한 헌신보다는 경영적 측면에서 득실을 논하고 있지 않은가! 목회자 갱신 없이 교회갱신은 기대할 수 없다. 10)

거짓과 위선이 사회 각층에 만연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부도덕과 부조리가 깊숙이 침투되어 마치 종교개혁 전야와 같은 위기감이 팽배한 시대가 되었다....진정한 영적 각성과 진리에의 헌신을 먼저 일으켜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갱신은 목회자 갱신으로부터, 목회자 갱신은 하나님 면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1)

이종윤 목사의 설교에서 나타나는 지도자는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 지도자들도 포함이 된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와 질책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보다 날카롭고 매섭다.

바산의 암소같이 제 몸만 살찌우고 목이 곧은 타조처럼 제 고집만 부리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흘러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강독으로 변개시켜 보려는 교만하고 거짓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진저! 12)

지도자들이 역사적 방향 감각을 잃고 질주하는 것, 또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권리주장만하는 것들은 그의 설교에서 악과 범죄를 행한 것으로 강하게 비판을 받는다. 그의 설교에서 가장 통탄해하는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수단 방법가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향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날카로운 예언자의 목소리가 자비와 사랑의 어머니의 호소로 바뀐다.

풍요와 방탕이 야합하여 범죄와 악을 조장하고 비천한 만용을 부리는 일에 대담해진 세대가 아닌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판의 자리에 올라앉아 교만한 하품을 하고 있는 추악한 위선의 거룩한 목소리가 이 사회를 압도하려 한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인간의 현실이 어떻게 비참해지는가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인가. ... 돌아오라!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만 산다. 13)

회개와 갱신의 메시지로써 그의 설교의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세워지고, 신

양과 생활의 표준이 되는 친구약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한국교회  
회가 되는 것이다.14) 그의 설교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주제, 즉 영적 각성, 경건한 헌신,  
십자가 구원의 감격회복 등도 바로 이러한 목표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한다.

## V. 웅변가, 복음전도자, 목양자, 예언자로서의 설교가

### 1. 설득력 있는 웅변가

이종윤 목사의 설교를 처음 대면하는 사람들은 그의 절도 있는 음성과 정확한 발음, 한글자  
도 흘러버림이 없이 확인하는 듯한 섬세한 표현에 놀라게 된다. 그의 기쁨이 없이 담백한  
표현은 포효하는 듯한 강렬한 음성에 어우러져 청중들을 결단의 무대로 이끈다. 오늘날 현  
란한 수사학적 표현에 익숙한 현대 청중들의 귀를 흔들며, 가슴으로 듣게 하는 힘이 느껴진  
다. 이는 어거스틴이 정성들여 연마했던 로마의 수사학자 키케로의 수사학의 현대적 적용이  
아닌가! ‘본질적인 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수사학이 현대 회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종윤 목사의 설교의 고도의 수사학적 전략은 일찍이 중고등학교 시절 끊임없는 웅변의 훈  
련에서 얻어진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시 서울시장배 전국 웅변대회에서 우승을 하  
여 장래의 정치가요 변호사의 자질을 인정받고 주위의 시선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경력  
이 있었던 것이다. 한 시대의 설교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다니던 시절, 채플실에 초청된 강사들은 그에게는 훌  
륭한 설교의 모델이었다. 백낙준 총장의 입학식 설교를 아직도 기억할 정도로 그는 설교에  
집중했고, 그러한 설교자가 되기를 갈망했다. 김형석 교수의 지성적 강연, 함석헌 선생의 예  
언자적 통찰, 한상동 목사의 신앙적 선언의 메시지를 되살리며, 집에 와서 그대로 실연하는  
훈련을 거듭할 정도로 열성과 설교학도였던 것이다. 오늘날 그의 드라마틱한 선포, 구체적  
인 가르침, 날카로운 분석과 전망의 메시지 등 다양한 그의 전달형식을 갖기까지 그가 얼마나  
꾸준히 훈련하고 연구했으리라는 것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 2. 열정적인 복음전도자

이종윤 목사의 설교는 불신자를 향한 열정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선교적 메시지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메시지의 분량으로 알 수 있다. 그의 선교적 메시  
지의 모델은 바울이다. 그에게 있어서 바울의 선교적 전략과 열정은 평생의 과제와 목표다.  
불신자들을 구원하고자하는 열정적인 복음전도자로서 그의 설교의 특징은 전략적이고 신학  
적이라는데 있다.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  
라, 타종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의 절대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전략가인 것이  
다. 그는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대화’라는 글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신학적 상이점을 비교하  
고, 두 종교 사이의 진지한 대화의 가능성을 제시할 정도로 전문적이다.

불교인에 대한 동정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대화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에게 공격적이거나 도전적 자세가 아닌 오히려 저들을 돕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한다. 기독교 복음을 마치 바리새적 태도를 갖고 강요하기보다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상황에 맞춘 변질된 복음이 아니고,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화에 선행되어야 한다. 15)

이종윤 목사의 선교적 열정은 로잔대회의 활동에서 나타나고, KIMCHI(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창립과 그 활동에서 나타난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선 매년 대륙별로 그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를 초청하여 선교적 비전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한다. 한번은 인도의 기독교 지도자를 초청하였는데, 그 중에 감독도 참여하게 되었다. 대회기간 동안에는 한국교회의 전통인 새벽 기도회부터 참석하는데, 새벽기도회에 이종윤 목사의 메시지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다 숙소를 돌아가는데, 감독만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남아서 오래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 그를 부르기 위해서 가까이 가보니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새벽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고 그의 사역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곳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인도에서도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곳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 협력 선교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아시아 선교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감동적 이야기의 하나일 뿐이다. 민족복음화, 아시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향한 선교적 전략 프로그램과 기도와 사역은 오늘도 그의 사역지를 중심으로 계속되어오고 있다.

### 3. 십자가를 지는 목양자

설교자의 인격은 설교의 내용과 제스처, 소리의 강약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삶의 한 순간 순간을 맞이하는 모습과, 위기의 순간을 지나는 자세와 결단을 통해 나타난다. 몸으로 설교하는 이종윤 목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은 충현교회에서 일어났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할렐루야교회를 개척 설립하여 양적으로 질적으로 한국에서 한창 소문이 나고 있을 때, 충현교회의 김창인목사의 후임으로 결정되면서 청빙을 받는다. 이종윤 목사의 뜻과 가족들의 만류는 강력한 김창인 목사의 부름에 맞서기에는 무력했고, 여러 번의 사양 끝에 결국 부임하고 목회에 전력하게 되는데, 충현교회의 제2 부흥기라 할 만큼 큰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종윤 목사는 급성장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뼈아픈 사건을 당하게 된다. 원로목사의 납득할 수 없는 비난과 정죄 속에서 그가 대응한 것은 침묵이었다. 거짓 진술과 모함에 대해 법적 대응하고 싸워야한다는 그를 아끼는 사람들의 요구를 뒤로하고, 때마침 모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 초빙제의를 검토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난다. 그가 떠난 후 충현교회에서 함께 나온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이종윤 목사에게 목회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주저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다시 한국교회에서 목회의 비전을 펼치기에는 그가 한국교회에서 당한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영광스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직을 수락하려고 할 즈음에, 한국에서 소식이 오기를 그가 충현교회에서 당한 사건에 충격을 받은 젊은 집사가 교회 안의 교

권 분쟁의 모습에 크게 실망한 나머지, 삭발하고 불교에 귀의했다는 소식이 이종윤 목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책임과 부담을 느끼며, 돌아올 것을 결심하고 서둘러 귀국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의 서울교회를 이루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억울한 모함과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싸우지 않고, 변명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기다리는 모습은 그 자체가 훌륭한 설교가 아닌가! 또 상심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앞 뒤 가리지 않고 일생의 큰 결단을 과감히 행하는 열정 또한 참된 설교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여기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본다. 이런 모습이 서울교회 목회에서 큰 메시지로 회중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봉사하는 중에 당하는 서운함과 억울한 사건을 당하는 성도들도 이종윤 목사 앞에 오면 잠잠해지며,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몸으로 하는 설교, 십자가를 진 설교를 직접 대면하기 때문이다.

#### 4. 미래를 준비하는 예언자

이종윤 목사는 한국교회의 경이로운 성장의 주체자들과 함께 선봉에 서있으면서도, 성장의 동기와 내용을 역사적 안목에서 성찰해보는 예언자적인 지혜를 지니고 있다. 그가 편집한 책,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에서 한국교회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의 성공적인 교회 성장에 즐거워하기에 앞서, 2천년 교회 역사에서 한국교회의 교회성장의 위치와 의미를 찾고자하는 진지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한국 교회가 짊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한국 교회의 수적 성장이 경이롭기 때문만이 아니고 이는 구태여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말하지 않더라도 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필연적 사실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가슴에 안고 제2세기를 출발하려 하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를 짊어진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역사의식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이다. 16)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경험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교훈을 찾아내는 학자적 식견과 성실성이 돋보인다. 즉, 초대교회의 목회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12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따라 ‘한국교회가 과연 성장하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 것이다.

1) 한국교회의 위기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개념을 상실한 채 대형교회만을 지향하는 개교회주의에 있다. 2) 복음의 본질보다는 주변적인 것이 우선하는 메시지의 위기에 빠져있다. 즉, 기복신앙의 강조와 이원론적 사고에 근거한 성속의 구분이 그것이다. 3) 한국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돈이다. 4) 한국교회의 대형 옥외집회(73년, 74년, 77년, 80년)가 전시적 효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교회관으로 나아가야 한다. 5) 교회직분의 계급화와 서열화는 반성서적이다. 6) 기독교의 본질을 위협하는 혼합주의와 다원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7) 양의 가족을 쓴 이리처럼 자기 치부하는 교역자가 증가하고 있음은 심

관 전야의 징조다. 8) 지방색과 인맥과 교파간의 편견은 무지와 교만의 소산이며, 말씀의 권위 앞에 무너져야한다. 9) 목회의 우선순위인 말씀봉사가 심방이나 교회 밖 복음주의운동에 의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10) 교회의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다. 11) 교권쟁탈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짓지도자 때문에 비전 있는 일꾼들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12) 대형교회의 우월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으로 바뀌어 멸망에 이르게 되는 역사적 사례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17)

2천년 기독교회사에 남을 만큼, 세계교회에 주목이 되고 교회성장의 모델이 되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하여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하고, 미래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적 식견과 예언자적 통찰이 놀랍다. 이러한 생각들이 이종윤 목사의 모든 설교에 면면히 배어있기 때문에, 그의 설교를 들을 때, 오늘날 많은 설교가들이 추구하는 설교처럼 청중을 편안케 하고 기쁘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긴장시키게 하고 불편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설교를 미래를 여는 예언자적 설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VI. 설교의 기초와 목표

### 1. 하나님 말씀의 권위

이종윤 목사의 설교의 신학적 기초는 코넬리우스 반틸의 신학의 전제다. 그가 반틸의 신학적 전제를 만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하였을 때였는데, 당시 그는 반틸의 이 강의에서 큰 감동을 받았고, 이 후에 그의 모든 성서해석과 메시지 선포의 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반틸의 세 가지 신학의 전제란 하나님에 대한 모든 변증과 신학은 오직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발간한 그의 책 『성경난해구절해설』에서 말씀사역자가 지켜야할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 세 가지로 ‘성경의 완전 영감, 무오성, 전적인 불멸성’<sup>18)</sup>을 제시하고, 그러한 원칙에서 성경의 난제들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였다. 그의 설교 또는 강연을 듣는 자들은 어느 순간에서든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회중에 대한 목회적 열정이나 현대인에 맞는 목회적 프로그램의 결핍이 아니라, 목회자의 말씀연구와 말씀에의 봉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울곧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종윤 목사는 목회자의 우선순위는 말씀봉사인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과도한 심방목회로 말씀연구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는 한국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정도로 말씀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up>19)</sup>

### 2. 신행일치의 삶

이종윤 목사의 설교를 대하면서, 이전의 다른 설교자들을 연구할 때와 크게 다른 특별한 차이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의 설교에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설교자의 체취가 묻어나오는 간증형 설교에 더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는 회중들이

그의 설교들을 대한다면 뭔가 아쉬움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 교회 회중들이 기대하는 바를 알고 있는 오늘의 설교자들이, 기회 있는 대로 자신의 경험과 간증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설교가의 설교를 연구함에 있어서, 설교자의 삶과 경험들은 설교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설교가의 생애와 삶의 단편들이 설교에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 의아했고, 결국 장시간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풀어나가게 되었다. 그의 설교 속에 설교자의 삶이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를 질문했을 때, 두 가지 답변을 들었다. 첫째는 그의 신학적 틀을 형성시켜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밴틸교수의 가르침, 즉 “개인 간증을 가급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 목회적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 때문인데, 그 중 하나의 사건으로 충현교회 다닐 때 김창인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분이 있으면 감사의 간증을 하라고 했을 때, 방산시장에서 장사하던 여성도한 분이 나와서 간증하기를, “시장에 큰 불이 나서 불이 옮겨가며 가게들을 태우는데, 자신의 가게 옆집까지 다 타고, 자신의 가게만 타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간증을 하니, 온 교우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성도 한 분은 그 간증을 듣고 울상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는 것이다. 이유인 즉은 그 성도의 가게도 시장에 있는데, 그 가게는 완전히 다 타버린 것이다. 그의 질문은 “그러면 당신 가게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 가게는 저주한 것이 되는가”라고 하며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종윤 목사는 “설교자의 간증은 객관성이 없고, 또 그것에 대한 평가나 이해는 듣는 회중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설교자는 자신의 경험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답을 했다. 그의 대답은 여기까지였으나, 긴 인터뷰를 마치고, 또 다시 그의 설교집과 책들을 살펴면서 그 설교자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이종윤 목사의 설교는 그의 목표인 ‘신행일치의 삶’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윤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에게 신행일치의 삶을 원하신다고 확신한다.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면전에서 경외심을 갖고 엎드린다. 믿은 대로 살라는 야고보서의 생동적 메시지가 주춤거리던 우리들의 두 발에 새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20)

이종윤 목사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낄 정도로, 성경대로 사는 것을 그의 신앙의 목표요 삶의 영광으로 삼으면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고자 한다. 다음은 이러한 신행일치의 삶이 설교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필자의 나름의 관찰과 분석이다. 이종윤 목사는 자신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성경보고, 얼마나 헌신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설교 중에 이야기할 때, 회중들이 얼마나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로 설명이 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울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으로 설교하려는 지혜로운 설교자다. 사실, 우리의 거룩한 삶의 시도와 노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설교의 회중들을 향한 것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을까!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주여! 주의 종들을 지나친 자기 노출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21)

자신의 선행과 신령한 생활을 알리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본능적 성향에 대한 저항이요, 울부짖음의 간구인 것이다. 이러한 속 깊은 설교자의 소원과 간구를 어찌 한 두 편의 설교로 알 수 있을까! 그러나, 가까이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과 그의 회중들은 이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종윤 목사의 설교연구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설교의 권위란 설교의 내용과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설교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물질과 소유에 대해 내린 결단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불편과 아픔들은 오히려 그의 설교를 불타게 하는 에너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당하는 희생과 고초는 그의 설교를 그리스도의 피로 적시는 우슬초가 된 것이 아닐까! 그가 신행일치의 삶을 살기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숨기는 삶의 흔적들을 그의 책 '야고보서'의 서문의 짧은 언급에서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불탄 포도넝쿨 같은 필자와 함께 지난 27년간 신행일치의 삶을 실천하려고 눈물과 기쁨을 같이 한 홍순복, 나의 아내에게 이 작은 책을 출판하면서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싶다. 22)

## VII. 한국 교회와 사회와 세계를 향해 행동하는 설교

교회 강단에서 시작된 이종윤 목사의 설교는 예배가 끝나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교회의 구석구석으로 옮겨져 선포되고, 교회 밖 한국 사회를 향해 움직이고, 머나먼 세계 교회를 향해 전진하며 계속된다. 그의 설교는 목회 사역 전반에 걸쳐 비전으로 응집되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 1. 목회자를 향한 메시지와 그 비전

한국교회의 갱신은 목회자 갱신에서부터, 목회자 갱신의 말씀공부와 신학적 훈련이라는 확산 아래 목회자 세미나를 1992년부터 2학기제로 개최하여오는데, 지금까지 연인원 5000여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참여할 정도의 규모 있는 세미나가 되었다. 말씀연구에 우선하는 세미나라는 점에서 다른 목회자 세미나와는 차별이 되고, 바로 이런 점에서 참여인원에 변동 없이 꾸준히 활동해 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목회자 신학세미나의 수료식에 하는 서약서는 이종윤 목사의 회개와 갱신의 메시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 이 서약서를 읽을 때, 설교자의 메시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와 결단에 마주 선 느낌이다.

1. 나는 교회갱신이 목회자 갱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한 자기 갱신에 힘쓴다. 2. 나는 교회갱신이 성경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신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강해한다. 3. 나는 교회갱신이 신행일치의 삶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때 확실해짐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범적인 삶을 실천한다. 4. 나는 교회갱신이 복음화 된 통일조국 성취의 지름길임을 믿고 사도적 교회처럼 한국교회 일

치를 위한 화평을 도모한다. 5. 나는 복음의 사도로서 땅에 묻힌 한 알의 밀알처럼, 힘을 가진 교회가 아닌 섬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새로운 가치 창조와 기독교 문화 창달에 앞장선다. 6. 나는 신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경에 배치되는 모든 사상과 신앙을 배격한다. 7. 나는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목회를 한다. 23)

‘목회자 세미나’가 국내의 목회자 갱신을 위한 사역이라면, ‘김치 신학세미나’(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는 세계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국 교회의 갱신운동을 통해 갱신의 비전을 심어주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부터 매년 권역별로 30여명의 교회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한국교회의 영적 갱신과 성장에 대해 세미나와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해오고 있는데, 1996년부터는 세계 로잔 대회의 공인 기구로 인정이 될 정도로 세계 선교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그의 설교의 비전이 이런 선교전략으로 나타나 결실하고 있는 것이다. 김바브웨에서 참석한 어느 목회자의 편지는 그 열매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김치세미나를 통해 내 영혼이 맑아졌다.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 말씀을 강조한 것은 나의 목회를 갱신시킬 것이다.... 서울교회에 진 사랑의 빛을 내 조국에 가서 복음으로 갱아보겠다. 24)

## 2.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와 비전

이중윤 목사의 한국교회를 향한 갱신의 메시지는 서울교회의 ‘목사·장로 안식년제 채택’으로 열매를 맺는다. 임직 받은 목사나 장로가 일정기간 시무한 후 휴무하면서 안식과 더불어 영성훈련과 타 교회 탐방, 심신의 재충전, 예배 회복, 임직할 때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한 목적이다. 목사는 시무 후 1년의 안식년을, 장로는 4년 시무 후 1년 안식년을 각각 갖고 안식년이 끝날 경우 당회의 신임 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 시무케 하는 제도다. 이때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공동의회에 넘겨 신임투표를 받는 것이다.

월간 조선(2000년 1월 별책 단행본)에 의해 한국 교회 10대 사건으로도 평가된 이 제도는 사회의 관심이 될 만큼 획기적인 제도인데, 그 이유는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였던 차에 도입된 제도였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이 제도의 도입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교회 역사에서 발생하는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은 대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군의 자리를 벗어나, 주인노릇을 하게 되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교회에도 교회 안의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때, 그 근본의 원인은 역시 교회 지도자들의 자기 자리 이탈이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종되고, 주도권 다툼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져 내린다. 안식년제 도입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회복의 운동이고, 정기적인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이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중윤 목사의 목회자 갱신의 메시지의 또 하나의 결실은 목사복 제정이다. 중세교회로 돌아가는 반역사적 작업이라는 회의적 시각에 대한 그의 대답은 단호하다. “목사의 신앙과 삶

을 표현하는 평상제복은 예배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복음을 몸으로 체현하는 교육적 기능도 있다”<sup>25)</sup> 성숙의 구별을 위한 것이나 권위주의에 대한 항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목사 자신의 신분에 맞는 언행을 하기 위한 자기 규제용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의 신행일치의 메시지, 바로 그것이다. 목사복에서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고집스러운 설교자의 절규를 듣는다.

### 3. 한국 사회와 역사를 향한 메시지와 비전

이종윤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순결서약식은 성개방 풍조를 무력하게 바라보면서 대세를 인정하고 문화적 현상을 맘 좋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목회자들에게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용기를 불어넣는 사건이다. 민족복음화와 군복음화 사역의 비전 2020운동에서부터, 기독교 교도소 설립 운동의 결실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교도소 설립을 법제화하게 된 것, 탈북 난민 보호 UN 청원 운동의 서명운동을 범세계적으로 전개하는 역사적인 일들은 생명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복음의 정신의 구현 운동이다. 사회 개혁과 인권을 표방하는 진보적 성향의 교회에서 부르짖을 법한 사역들이 실제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러한 모든 사역을 위한 뜨거운 기도의 지원이 있다는 사실이다. 98년부터 홍해작전으로 명명된 특별새벽기도회에서 이 모든 사역은 공동의 기도제목이 되어서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 설립일 50일 전부터 50일간 진행되는 사명자 대회에서도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다. 설교의 메시지가 전략으로 나타나고, 그것의 완성을 위한 영적인 지원과 실제적인 헌신과 참여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 결론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설교자 연구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감동과 도전의 기회가 되었다. 설교 연구는 단지 설교자체의 연구가 아니라, 그의 신앙의 넓이, 학문의 깊이, 인격의 높이를 재야하는 과정이 있는데, 필자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저서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놀라움과 감탄으로, 때로는 숙연함으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경험을 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섬세한 목회적 지침이나 복음화를 위한 끈질긴 전략들을 보았기 때문이고, 한국 교회와 사회, 그리고 세계교회에 목회 갱신, 교회 갱신, 사회 변혁의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행일치의 고집스럽고 눈물겹기까지 한 결단들을 가까이서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종윤 목사의 설교와 목회와 신학과 삶이 한국교회 설교 역사의 한 맥을 이루게 되어, 오고 오는 세대와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을 때, 이 연구가 한 몫을 담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sup>26)</sup>

1) 이종윤, 『헬라이어강독』 (정음, 1983), 3.

2)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의 경우, 구약 25%, 신약 75%의 비율로 나타난다.(서정민,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설교사 이해," 『한국교회 설교가연구 I』 (한국교회사학연구원, 2000), 79.

3) 다음은 설교본문에 나타난 단어의 횟수다.

하나님 76, 그리스도 40, 예수 성령 17, 십자가 11, 교회 15, 축복, 복, 행복 11  
사랑 13, 믿음 8, 소망 7, 민족 5, 조국 2, 성도 5, 그리스도인 14, 천국 7, 하나님 나라 3

열매 3, 영광 7, 고난 5, 말씀 9, 성경 3, 복음 8, 바울 13, 다윗 7, 모세 5, 제자 7

4) 다른 본문에서도 발견하는데, 즉 “그리스도의 제자됨” (요 6:66-71; 1997. 9. 21), “제자됨으로 부름” (마 4:18-22; 2001. 7. 8).

5) 이종윤, 『소선지서』 (필그림, 1996), 3.

6) 이종윤, 『야고보서』 (필그림, 1994), 7.

7) 이종윤, 『창세기 I』 (필그림, 1995), 5.

8) 이종윤, 『빌립보서』 (필그림, 1990), 5.

9) 위의 책, 4.

10) 이종윤, 『순례자』 (필그림, 1993), 33.

11) 위의 책, 41.

12) 위의 책, 18.

13) 위의 책, 61.

14) 위의 책, 78.

15) 이종윤,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대화,” 『한국교회의 종교개혁』 (엠마오, 1983), 133.

16) 이종윤 편, 『한국교회의 종교개혁』 (엠마오, 1983), 1-2.

17) 위의 책, 110-121. ‘오늘날 한국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돈이다. 교회가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지만 현금액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웃 교회 성도를 끌어들이야 하며 교회 안에 돈 가진 자에 대한 특대와 교회의 상류사회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교회가 이겨나기 힘들만큼 교회의 목을 조이고 있는 핍박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교회에 정치적 도는 타종교로부터의 박해가 왔더라면 차라리 목숨이라도 걸고 싸워 줄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겠거니와 이 보이지 않는 내적 핍박 앞에서는 오금을 못 펴고 항복하는 자세가 교회 도처에서 보여 지는 또 하나의 비극적 현실임을 지적해야 한다.’ (120)

18) 이종윤, 『성경난해구절해설』 (필그림, 2004), 485.

19) 이종윤 편, “한국 교회성장과 그 문제점,” 『한국교회의 종교개혁』 (엠마오, 1983), 119.

20) 이종윤, 『야고보서』 (필그림, 1994), 7.

21) 이종윤, 『순례자』 (필그림, 1993), 19.

22) 이종윤, 『야고보서』 (필그림, 1994), 7.

23) 『서울교회 10년사』 (2001), 57.

24) 위의 책, 62.

25) 위의 책, 83.

26)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는 이종윤 목사의 설교의 하나의 소 주제가 끝날 때, 또 결론의 마지막 어구에 사용하는 그의 특유한 어법이다.

이종윤 목사의 교회건설과 설교

이 상 규

고신대학교 교수, 역사신학

< 목 차 >

1. 이종윤의 신학과 목회활동
2. ‘교회의 교사’ (Doctor ecclesiae)로서의  
이종윤 목사
3. 이종윤 목사 설교의 특징  
시작하면서

서울교회 담임목사인 이종윤 목사는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볼 때 특수한 목회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그의 지적 여정이 보여주듯이 그는 풍부한 학문적 수련을 거쳤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은 신학자이자 목회자이며, 저술가이자 설교가이다.1) 평양의 장로교신학교에서 31년 동안(1908-1939) 실천신학을 가르쳐 온 콕안런(Charles Allen Clark, 1878-1961) 선교사가 정의했듯이 목회(牧會)가 “복음의 진리를 신자의 생활에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때,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의 범위와 폭은 제한적일 수 없다. 인간과 사회, 문화와 역사, 현실과 세계를 헤아려보는 지적인 안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바르게 섬겨가는 일 곧, ‘교회건설’의 과업을 실행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된다. 콕안런의 정의처럼 목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양육하는 일”이라고 할 때 진리의 바른 해명을 위한 지적 훈련, 바른 성경해석, 영적 분별력, 균형잡힌 윤리적 감각을 개발하는 일은 목회활동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 곧 교회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초석일 수 있다.

과거 한국교회에 이와 같은 목회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의 지적 훈련을 중시하지 않았던 한국교회적 전통에서 볼 때, 대학과 교회 양 세계에서 동시에 일했다는 점은 신학과 교회간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만이 아니라 ‘신학 없는 교회’나 ‘교회 없는 신학’의 양 극단을 극복하고,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며, 교회는 신학을 세워가는 건실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도 유의미한 일로 평가된다. ‘신학 없는 교회’가 주관주의나 신비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면, ‘교회 없는’ 신학은 사변주의나 극단적 신학의 철학화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이종윤 목사의 경우는 한국교회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현실성이 부족한 이상일 수 있으나, 목사는 학자이어야 하고, 학자로서의 목회자가 될 때 한국기독교의 수준을 고양시킬 수 있고, 동양적 복의 개념에 착근한 현세적 안녕이나 제화(除禍) 추구로서의 신앙, 혹은 기복적 현세지향적인 성향에서 보여주는 천박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평가한다면 한국교회 강단을 쇄신할 수 있고, 그 시대적 조류나 가치를 추수(追隨)하기보다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오늘의 사회를 점평(點評) 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종윤 목사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의 신학과 목회, 그리고 설교에 대해 주목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종윤 목사의 설교가 어떠한가를 밝히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설교는 설교자의 신학과 목회활동 전반의 활동과 깊은 관련을 맺기 때문에 그의 설교의 기초가 되는 신학에 대해 살펴보고, 그의 교회를 위한 활동에 대해 고찰한 후 그의 설교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신학과 설교에 대한 고찰은 그의 출판된 설교집2)을 기초로 하되, 그의 신학 저작3)과 강연집4), 신앙칼럼 등을 참고하였다. 이 글이 출판된 설교집을 기준으

로 한 것이므로 실제 교회에서 행한 설교에 대한 분석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종윤 목사는 신학자이자 교수로, 혹은 목회자로 일하면서 가르치며 설교해 왔으나 그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건설의 여정이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과 은사, 직분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곧 교회건설이다. 따라서 ‘교회건설’이라는 단어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그리고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sup>5)</sup> 이종윤 목사의 교수활동, 목회사역, 집필과 저술, 설교사역은 개 교회의 목회활동으로 제한될 수 없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 곧 교회건설을 위한 봉사였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의 사역을 ‘교회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하고 그의 설교에 대해 정리해 두고자 한다.

## 1. 이종윤의 신학과 목회활동

### 1) 복음주의 신학

이종윤 목사의 신학은 한마디로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근본주의, 보수주의 정통주의, 혹은 개혁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좀 더 광의적으로 판단한다면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복음’(euangellismos)에서 유래한 ‘복음주의’(Evangelicalism)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고, 이 신학적 사조는 16세기까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전개된 복음주의 운동에서 구체화되고, 20세기 후반인 1952년 조직된 세계복음주의 협의회와 1974년의 로잔 세계복음화 위원회에 의해 보다 명료하게 발전된 신학을 의미한다. 복음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이전의 역사적 기독교신학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고, 신자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신앙체계를 의미한다. 복음주의는 기독교의 근본교리를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주의, 개혁주의, 보수주의 등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지만, 근본주의와는 달리 분리주의적 혹은 반문화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복음전도와 함께 신자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를 강조한다. 특히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과 비교하여 이해할 때, 복음주의는 성경의 영감과 절대권위,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주권, 인간의 전적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대속적 죽음,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을 믿으며, 선교의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sup>6)</sup>

독일과 미국에서 연구와 교수를 함으로써 구라파적 전통과 미국적 현실을 자신의 신학 속에 적절히 소화했던 필립 샤프(Philip Schaff)는 복음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즉 복음주의란,

객관적으로는 성경의 권위를 평가절하 시키는 성경비평가들과는 달리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관적으로는 로마 가톨릭의 신학과 선행의 점진적인 교리를 반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받아들이며, 사회적으로는 사제를 중보자로 생각하는 로마 가톨릭의 고해성사를

반대하고 만인사제적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7)

샤프의 복음주의에 대한 정의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비평주의를 반대하는 신학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의 정의는 19세기적 상황에서 표명된 것으로서 자유주의 신학과 분명한 차이를 지적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18세기 복음주의 각성운동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규정되었고, 8) 20세기 후반에 와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므로 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인 조지 말스던이나 오켄가의 정의가 보다 적절할 것이다. 즉 복음주의는 근본주의나 보수주의 등 모든 정통주의를 포용하지만 근본주의 운동에서 상당히 결여되었던 사회적 의식과 책임을 드러내고, 개인구원과 기본교리를 받아들이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입장이다. 9)

이런 점에서 복음주의는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양극단을 경계하는 건실한 신학적 입장이다. 이런 입장의 대표적인 학자가 미국의 린드셀(Harold Lindsell), 칼 헨리(Carl Henry), 독일의 피터 바이엘하우스(Peter Beyerhaus) 등이다.

이종윤 목사는 미국적 상황에서 생성된 근본주의 신학의 기본 정신은 수용하면서도 분리주의적이며 반문화적인 성격 10)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주의에 배어 있지 않고, 구과파적인 개혁주의 신학에 동의하면서도 교조주의적 냉랭함에 매몰되지 않는 다이내믹한 성향을 지니고 있고, 자유주의 신학을 거부하는 보수주의의 기본 전통은 계승하면서도 복음의 사회적 책임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는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복음주의라는 신학 체계는 특정 지역에 매이지 않는 범세계적인 신학운동으로서 복음의 본질을 고수하면서도 문화적 책임을 경시하지 않고, 진리의 파수를 강조하면서도 분리주의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반 자유주의적인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종윤은 이런 입장에서 교수하고 목회해 왔다. 11)

이런 그의 신학은 그의 삶과 학문적인 여정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이후 교수로 일했던 아시아연합신학대학(ACTS)의 신학적 입장, 그리고 그의 목회 활동, 특히 그가 로잔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사실이다.

이종윤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아시아연합신학대학 신약학교수로 취임하게 되는데, 이 학교는 복음주의 신학적 배경에서 아시아 지역복음화를 위한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1974년 5월 개원하였다. 이 학교 설립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한철하, 초대원장이었던 마삼락(Samuel H. Mofett), 이사장이었던 한경직 등은 다 이런 이상의 소유자들이었고, 바로 이런 신학적 기초에서 교수를 초빙하였던 것이다. 이종윤목사는 김기홍, 김성철, 김세윤, 마린 벨슨, 안봉호, 이진태, 전호진, 정규남 등과 마찬가지로 복음주의자였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모였던 로잔대회는 복음주의적인 선교대회로서 복음주의의 성격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해 주었다. 약 150개국에서 온 2,700여명의 대표들이 모인 이 대회에서는 성경의 권위, 복음전도의 본질, 그리고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비롯한 15개항의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을 발표했다. 이것은 1973년 방콕에서 모였던 WCC의 선교개념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었다. WCC는 건강, 평화, 정의 등과 같은 사회, 정치적인 해방운동을 선교의 과제로 이해했고, 그것이 “세상을 위한 교회”라고 보았으나, 로잔대회는 선교를 정치, 사회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로잔대회는 사회적 책임을 경시하지 않았다. 앞에서 말했지만 로잔대회가 복음화의 요청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분리시키지 않았던 점은 근본주의와 다른 점이었다. 그가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로

잔대회의 위원으로 피임되고 오늘까지 봉사하고 있는 점은 그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실 이 보다 더 분명한 점은 후론하게 될 그의 설교 속에 잘 표명되어있다. 설교자에게 신학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을 보는 하나의 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교자의 신학이 어떠하냐하는 점은 설교의 성격과 내용을 결정한다.

## 2) 목회활동과 교회건설

이종윤 목사는 이런 신학 바탕 위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목회자로 활동해 왔는데, 특히 그의 할렐루야교회의 설립(1980년)은 그 이후 한국교회의 갱신과 쇄신을 추구하는 새로운 교회운동의 시작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교회운동이란 신학적으로는 복음주의를 지향하면서도 목회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식의 목회를 추구했다는 점에 유의한 표현이다. 즉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 예배형식, 건물의 형태 등에서도 기존의 교회와는 달랐지만 특히 교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과 개 교회 중심적인 목회 방식을 떠나 보편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목회의 우선권을 두었다는 점이다.

할렐루야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영동교회(1976), 사랑의교회(1978), 강변교회(1979), 은누리교회(1985) 등과 함께 이종윤목사는 강남의 교회구조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갔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7년 6개월간 시무했던 이종윤목사는 1988년 4월 이 교회를 사임하고, 충현교회 담임목사로 옮겨가게 된다. 충현교회에서도 변화와 쇄신을 추구하면서 봉사했고, 약 20년 전 서울교회를 설립하게 된다.

이런 그의 목회활동의 와중에서 신학과 교회, 교회와 사회, 사회현실과 신학의 접점에 서서 이들 양 세계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에 주목하였다. 즉 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unchangeable word of God)에 충실하면서도 변화하는 세계(rapid changing world) 속에 교회 건설의 과업을 수행할 것인가를 고뇌했다. 이것은 그의 현대 사회의 질문에 대한 신학적 응답이었다. 즉 그는 변화하는 역사 현실에 우선권을 두어 복음의 메시지를 상실한 진보주의 약점을 극복하면서도, 교회를 역사 현실로부터 지나치게 분리하려는 근본주의 문제점도 헤아리고 있었다.<sup>12)</sup>

이와 같은 불변의 복음을 20세기 한국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고(갱신), 기독교적 가치를 고양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결실이 그가 주도했던 강남지역 연합신앙강좌와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의 설립이었다. 이종윤의 목회는 기존의 목회형식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그 새로움이란 개교회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위에서 말했는데, 이 두 가지 결실은 구체적인 증거였다.

강남지역 연합 신앙강좌는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을 공유하는 강남지역의 5개 교회가 연합하여 신앙강좌를 개최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과 기독교적 가치를 일깨워주었다. 첫 강좌는 할렐루야교회의 주도로 1982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었고, 참여한 교회는 할렐루야교회(이종윤 목사)를 비롯하여 강변교회(김명혁), 남서울교회(홍정길), 사랑의 교회(옥한흠), 영동교회(손봉호) 등이었다. 이 강좌는 신앙과 신학을 공유하는 교회들이 교단적 배경이나 차이를 넘어 연합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지만, 이 강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사회에서 직면하는 신앙과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깨닫게 해 주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 강좌는 1989년까지 8년간 계속되었고, 이종윤 목사는 이 강좌를 통해 “크리스천의 결혼

관,” “크리스천의 가정윤리,” “크리스천의 직업윤리,” “크리스천의 재물관,” “크리스천의 연보생활,” “크리스천의 제사문제,” 등에 대해 강연했는데 이런 강연들은 후일 다른 강연원고들과 함께 묶어져 『크리스천의 신앙곡선』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종윤 목사는 이런 노력이 “한국교회의 한 번두리에서 교회를 염려하고 주님의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몸부림 쳤던 흔적”이라고 회고했지만,<sup>13)</sup> 박용규 교수는 그의 『한국교회를 깨운 복음주의운동』에서, “교파와 교단을 초월한 강남연합신앙 강좌는 한국복음주의 운동이 저변확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썼다.<sup>14)</sup>

강남연합신학강좌는 처음부터 복음주의 자의식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1982년 이들이 이 신앙강좌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소원은 첫째는 신앙이 점점 세속화 되어 가는 한국교회 안에 복음주의적 바른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자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너무 개교회주의적이고 분파주의적인 한국교회 안에서 몇 교회부터라도 협력하는 불꽃을 일으키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한국교회와 아시아 교회가 한편으로는 극우경화와 극좌경화 및 세속화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물려받은 복음적 신앙의 유산을 굳게 지키고, ... 여러 교단 지도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연합운동을 하겠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 가지가 1979년부터 시작된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운동의 목적이었고, 또한 강남지역 연합 신앙강좌의 출발동기였다.

이런 취지의 교파초월과 연합의 정신은 이종윤 목사가 추구했던 정신이었다.<sup>15)</sup> 이런 과정에서 이종윤 목사는 개 교회만이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연합운동에 동참하면서 교회건설에 이바지 하였다.

교회건설을 위한 그의 또 한 가지 기여가 한국교회 갱신 연구원(KIMCHI,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의 설립이었다. 이종윤목사는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숙을 위해서는 강단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확신했다.

... 한국교회는 갱신과 성숙이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가 갱신되고 성숙하려면 강단이 먼저 새로워져야 한다. 강단이 새 힘을 얻으려면 그 강단을 책임진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강단이 얼마나 성경을 바르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익히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sup>16)</sup>

그가 목회자들의 영성개발과 훈련, 목회와 설교에 대한 훈련을 위해 1992년 교회 부설기관으로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을 설립한 것은 바로 이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이었다. 이 훈련원은 정기적인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교회를 쇄신하고자 했는데, 그간 시행된 주제를 보면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의 설립동기와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sup>17)</sup> 즉 이종윤 목사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을 통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text)을 어떻게 변화하는 세상(context) 속에서 효과적으로 전파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한국교회의 갱신과 쇄신을 추구했고, 동시에 목회자의 지도력을 개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원은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연장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성경과 신학과 목회에 대한 새로운 동향을 이해하게 했다. 이런 일련의 목회 지도력 개발은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교회 건설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이렇게 볼 때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한국교회의 뿌리 깊은 개 교회주의를 넘어서려는 교회 건설의 의지였고,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의 내적 일치를 이루는 연합운동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년간 시행된 25학기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연인원 1만 2천 여 명이 훈련을 받은 사실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3년간 이 훈련원을 이끌어가면서 성경 강해와 강의를 통해 봉사해 온 일은 교회건설을 위한 이종윤목사의 중요한 기여라고 볼 수 있다.

## 2. ‘교회의 교사’(Doctor ecclesiae)로서의 이종윤 목사

필자는 이종윤 목사가 말로 명실상부한 ‘교회의 교사’라고 생각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교회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 1) 성경적 교회, 교회성장론

첫째, 그는 교회란 무엇이며 바른 교회 성장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었다. ‘교회’와 ‘교회 성장’은 그가 항상 관심을 가졌던 강연과 설교의 주제였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점은 그의 “성경적 교회론,”과 “교회구조와 성경적 성장 원리”속에 표명되었다.<sup>18)</sup> 에드문드 클라우니(Edmund P. Clowney)의 견해와 동일하게 이종윤은 교회는 언약백성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을 말하고, 지역교회에 주어진 교회의 성격과 사명에 대해 기술하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충실한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이해하였다. 그는 가시적 교회의 갱신만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주목했다. 이 점은 교회성장을 논하는 그의 글이나 설교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이 그는 교회가 무엇이며 진정한 교회성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또 그의 목회를 통해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196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교회성장이었으나, ‘교회’의 ‘성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구가 없었다는 점이다.

1961년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을 제일의적 과제로 추구하였다. 이것은 군사혁명의 당위성을 피하는 명분확보로 제시되었으므로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는 성장지상주의(成長至上主義) 이데올로기는 그 시대의 가치였다. 그래서 성장지상주의는 다른 모든 규범에 선행하는 보편적 가치로 추구되었고 19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바로 이런 성장지상주의는 196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교회성장’은 최선의 요구이자 최고의 가치였다.<sup>19)</sup> 그래서 전도운동이 강조되었고 총동원 전도라는 이름의 대중 초청집회가 유행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눅14:23)는 교회의 표어이자 설교의 주제였다. 전도가 강조된 사실 자체는 좋으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넓은 의미의 전도명령의 수행이라기보다는 개 교회 성장에 보다 큰 강조점을 둔 교회의 수적 확장을 의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성장지상주의는 물질적 풍요와 현세적 축복을 강

조하여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으로 이해되어 기독교 신앙은 물질적 축복을 위한 전거로 강조되었고, 현세적 안녕이나 소원성취를 위한 방편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기복신앙(祈福信仰)은 이 시기의 한국교회의 특징이 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런 성장제일주의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었는데, 첫째는 성장을 수직적이고 양적인 측면에서 이해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 이외의 가치는 경시하거나 무시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성장만 이룰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무시하거나 경시해도 된다는 사고이다. 이런 경향이 한국 사회에 수많은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현실에서 이종윤은 바른 교회 성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를 성경적으로 해명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성장 운동을 격려하는 동시에 성경적 성장을 계도하였다. 그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했다.

교회성장학이니 혹은 교회성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합니다만 교회를 사람이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교회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주고 심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성장은 하나님과 인간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오늘의 많은 학자들, 특별히 교회성장학과라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인간적인 측면만 강조하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사회학, 혹은 인류학을 강조하게 되고, 교회성장은 사람이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좌해서 다른 면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20)

이런 교회성장관은 그의 설교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sup>21)</sup>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찰스 피니적인 부흥이해는 성장은 인간 중심의 노력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시 성장 운동에서 균형 잡힌 이해를 하도록 인도해 주었고, 동시에 일방적으로 소개되던 풀러신학교 교회성장학과의 수적인 혹은 인류학적인 성장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다. 동시에 이종윤 목사는 바른 교회성장을 외적 확장으로만 볼 수 없고 내면적 성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성장의 원리를 토대로 성장을 말하면서, 특히 고난을 통한 성장에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상을 지키는 동시에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sup>22)</sup> 이것은 동시에 변영신학의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지적하여 교회에 바른 지표를 제시한 점에서<sup>23)</sup> 그는 교회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2) 교회의 본질로서의 선교

이종윤의 목회사역과 설교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그의 선교에 대한 관심이었다. 특히 그는 중국선교를 강조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이미 1910년대 해외 선교를 시작하였으나 일제 치하에서 선교사 파송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일제하에서는 자국민의 해외 이주로 인한 필요성 때문에 선교의 대상이 원주민에서 한국인 ‘디아스포라’에로 전환된다. 해방 후 파송된 첫 장로교 선교사는 1956년 태국으로 파송된 김순일 목사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선교가 교회적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1970년대를 거쳐 가면서 한국교회는 선교에 대한 자각을 얻게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수적 성장에 치중하다가 소위 한국기독교 100주년 행사와 함께 교회의 선교사명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런 자각은 특히 CCC, UBF, YWM 등 학생선교단체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1980년대의 해외선교를 가능케 하는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사역은 1980년대에 본격화 되었고, 이때부터 교회의 선교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확산된다. 이런 한국교회 현실에 부응하여 그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고취했다. 특히 중국 선교를 강조한 점은 그의 중요한 기여였다.<sup>24)</sup>

이종윤목사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내적 기쁨(요17:13)이라면, 한국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거룩이며(요17:14-17), 한국교회가 선포해야 할 것이 진리(요17:17)라면, 한국교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선교(요17:18-19)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요17:18)에서 선교의 근거를 논하면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선교는 수행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참된 선교가 무엇인가를 제시한다.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논하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타종교와의 관계, 선교의 성경적 근거, 선교전략, 교회성장, 문화문제, 상황문제, 전도와 사회적 책임 문제, 교회갱신문제 등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 그리스도가 선교의 자료요 방법이며, 핵심이고 근본이며, 목표가 되신다는 것이 중요하다.<sup>25)</sup>

이런 교회의 선교의 사명과 실천을 보여준 것은 아직 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1980년대부터 한국교회에 선교적 이상을 심어주었다고 판단된다.

### 3) 교회 연합과 일치에 대한 관심

한국에서의 장로교회는 1912년에는 ‘조선 야소교 장로회 총회’를 조직한 이래 1942년 제 31회 총회를 끝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기까지 단일 총회로 남아 있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교회재건운동이 일어나고 남한만이라도 총회를 재건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청으로 1946년 6월 12일 남부총회가 조직되어 기존의 총회조직을 재건한 이래 1952년 8월말까지 단일총회로 남아 있었다. 일제하에서의 장로교 총회의 해산은 타의에 의한 강압의 결과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서의 장로교회는 1912년 총회의 조직 이후 1952년 8월까지 40년간 단일 총회로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대 한국의 장로교회는 3차례의 분열을 통해 고신, 합동, 통합, 기장 등 4교단으로 분리 조직되었고, 이 분열이 오늘의 한국장로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후, 특히 1970년대를 거쳐 가면서 수다한 분열을 거듭하여 현재 한국장로교회는 약 100여개가 넘는 교단으로 분리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장로교회 간의 연합과 일치는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종윤 목사는 한국장로교회 정체성회복운동 위원회 구성(2001년 8월)을 주도하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공유하는 교회 간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고 있다. 또 장로교회 배경의 신학자들 간의 연대와 학문적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장로회 신학회’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종윤 목사는 칼빈의 교회론에 근거하여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한 한국교회는 어떤 이유로라도 더 이상 몸 되신 교회를 찢는 일은 하지 말고 이제는 싸매고 치료하고 봉합하는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한국의 장로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연합을 이룬다면 21세기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이 될 수 있다”<sup>26)</sup>는 확신으로 이를 주도하고 있다. 그가 신앙고백을 공유하는 장로교회들 간의 연합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적 일치를 말하는 WCC와는 다른 것이다. 그는 교회의 연합은 교회의 속성과 관련된 것임을 말하면서, “교회연합은 교회의 거룩함의 산물이다. 진정한 연합은 교회를 거룩애로 이끌어 간다. 거룩성이 결여된 연합은 결국 붕괴되거나 처음부터 연합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 같은 거룩함과 연합함의 관계는 사랑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교회의 거룩을 요청하게 되고, 불결한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연합의 출발이다”<sup>27)</sup> 즉 그는 혼합주의적 연합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가 교회 연합의 신학(교회론)적, 역사적 당위성을 지적하고 연합을 위한 실제적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 이종운 목사는 교회연합의 필요성과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이종운 목사는 오늘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설교를 통한 가르침이 가장 큰 교훈일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교회건설을 위한 봉사였다.

### 3. 이종운 목사 설교의 특징

이종운 목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설교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된다.

#### 1) 설교의 기초: 신학적 건설성

이종운 목사의 설교의 한 가지 특징은 신학적 건설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한국교회는 1960년대 경제성장을 제일의적 과제로 수용하는 경제정책의 영향, 미국의 교회성장학파의 영향 등으로 대교회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대교회 지향적인 경향은 조용기 목사와 순복음교회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또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은 대교회 형성의 외적 요인이 되었을 것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은 좋은 설교자를 찾아 모여드는 경향을 보여 이전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대형교회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대형교회 설교자들은 일단은 주목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설교가 다 신학적으로 건설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신학적으로 건설하지 못하지만 대교회를 이룬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신학이란 성경을 보는 관점인데, 이 신학은 설교와 목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한 사람의 신학은 반드시 신학적 수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 개인의 하나님 이해, 그리스도 이해, 혹은 종말 이해는 한 사람의 신학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설사 신학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믿는 바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 배후에는 일정한 형식의 하나님 이해의 틀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아브라함 카이퍼는 ‘순진한 경험’이라고 불렀다.

신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신학교육과 무관할 수 있지만, 신학의 건설성은 신학교육과 무관할 수 없다. 이종운의 설교에서 보게 되는 중요한 특징은 신학적인 건설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신학적인 설교를 하느냐 하는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의 '체계'(systematic structure)로 이해하는 일관성을 의미한다. 이 일관성을 상실하면 자신의 성향이나 취향, 상황에 편리하게 해석하는 주관주의에 빠지거나, 영적으로 유익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에서 신령주의 혹은 신비주의적으로 빠지게 된다.

이중윤의 설교에는 주관주의적인 요소나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없다. 그는 일관된 해석 원리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 건설한 신학적 기초를 보여준다.

## 2) 설교의 방법: 강해설교

이중윤 목사 설교의 두 번째 특징은 강해설교(expository preaching)라는 점이다. 그의 출판된 설교집이 강해집이란 점을 보면 그는 강해설교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해설교란 설교자가 자신의 취향이나 기호, 필요성에 따라 특정 본문을 선택하여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책을 순차적으로 설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책을 중심으로 해설하는 설교인데, 설교자 본인이나 청중의 기호도와 관계없이 성경말씀을 전체적으로 설교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해 주는 장점이 있다.

강해설교는 종교개혁자들이 즐겨했던 설교 방식인데, 쾰빙글리의 경우 1518년 말 취리히로 이거한 이후 1519년 1월부터 신약성경을 강해하기 시작하였다. 루터와는 달리 에라스무스와 친근했던 쾰빙글리는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편집한 헬라이어 신약성경을 빌려와 수기본을 만든 후 그 책을 중심으로 마태복음부터 차례로 강해하기 시작하여 사도행전, 바울 서신, 공동서신 순으로 설교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일반적 관행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그는 이때로부터 1526년까지 7년에 걸쳐 신약성경을 설교하였다. 이런 방식의 설교의 장점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책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와 내용, 메시지를 헤아리게 해 준다는 점이다. 칼빈의 경우도 동일했다. 칼빈에게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선포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기에 강해설교를 선호했고, 창세기, 신명기, 욥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대소선지서와 신약의 거의 전권을 강해하는 설교를 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는 주일에는 신약과 시편을, 평일에는 구약을 순차적으로 강해했다고 한다. 존 나스의 설교 또한 주해 설교였다. 그는 중세 설교자들의 세세한 풍유적 해석을 버리고 청중들에게 성경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설을 제시하였다.<sup>28)</sup> 그는 성경 본문을 한절 한절씩 순차적으로 설교하는 주해설교였을 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설교였다.<sup>29)</sup>

이중윤목사의 설교집은 『예수의 기적』 외에는 다 강해 설교로 구성되어 그의 주된 설교방식은 강해설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강해설교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강해설교란 주석이나 일반적 해설과도 다르다. 오히려 그들을 합쳐놓은 본문을 주석하여 그 빛을 가지고 시대와 상황적 문제를 풀어내어 그 답을 얻어내는 이중 작업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강해설교자는 성경을 철저히 주석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사와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 그리고 심오한 신학적 역사적 안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강해설교야 말

로 지고한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심오한 신앙경륜의 집대성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30)

이런 설교는 캠퐰 몰간(Campbell Morgan)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이 즐겨했던 설교 방식이다. 이런 강해설교는 모범적 설교나 도덕주의적 설교를 극복하게 해 준다. 실제로 이종윤의 설교에서 ‘모범적’(example-oriented) 설교나 ‘도덕적’ 설교는 찾아 볼 수 없다. 바울이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행 20:27)고 했을 때 우리 말 성경에서 ‘다’(all)는 부사로 번역되었으나 본래의 의미는 형용사적 의미이므로 ‘하나님의 모든 경륜’(whole council of God)을 전했다는 의미인데, 이종윤 목사는 이처럼 성경 전권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설교하고자 했다. 이렇게 함으로서 한국교회의 소위 3대지(大旨)설교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런 설교 방식은 3가지 요지를 말한다는 점에서 단순하고 때로는 명료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설교자 주관에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3대지 설교 방식은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sup>31)</sup> 성경의 메시지를 포괄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그런데, 강해설교는 성경본문에 충실한 점은 분명하지만 성경의 장과 절을 따라 순차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항상 청중이 서 있는 현실에 부합하는 본문 일 수는 없다. 반대로 강해설교는 청중이 처해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성경 본문을 강해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보편적인 가르침을 주기도 한다. 이것이 강해설교의 장점이자 한계일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과 관련시킨 본문과 설교를 원하는’ 오늘의 한국의 현실에서<sup>32)</sup> 청중의 기호에 굴복하지 않고 우직하게 강해설교를 시행한 것은 이 설교야 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가장 이상적인 설교방식이라는 확신 때문일 것이다. 때로 강해설교는 일상의 현실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은 어느 시대이든 상관없는 보편적 지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과 무관한 본문은 없다.

### 3) 설교의 목표: 본문의 뜻을 해명하려는 의지

이종윤 목사의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 본문의 가르침, 곧 원저자 뜻을 충실히 전달하려는 의지이다. 이것이 그의 설교의 동기이자 설교의 전개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기초이며, 이 점이 그의 설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설교에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반복되고 언급되는 단어는 “본문에 보면,” 혹은 “본문에 의하면,” “본문에는” 등의 단어인데,<sup>33)</sup> 이 점에는 이종윤 목사의 설교관이 나타나 있다. 즉 설교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명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설교란 존 나스의 말처럼 “자신의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을 대신 부는자”(trumpeter)이므로 성경이 주어진 역사적 상황의 빛에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그는 한글 개역성경본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원어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며,<sup>34)</sup> 비유나 예화를 들기도 한다.

이종윤 목사의 설교에서 비유나 예화의 사용은 극히 제한되었다. 예화란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의 대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실천적 본보기(example)로 제시되는데, 많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이 비유나 예화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때로는 예화 중심의 설교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럴 경우 본문보다 사례(예화)가 더 중시되어 설사 강해설교의 방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모범(식) 설교’가 되어 도덕주의적 교훈으로 끝맺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종윤의 경우 예화나 비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내용도 단순하다. 그는 본문을 강해하면서 본문의 뜻이나 신학적인 개념을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 때로 예화를 들지만 예화나 비유 사용의 적절성은 그의 설교의 효과를 높여준다. 다시 말하면 그 설교에서 예화나 비유는 성경강해의 내용이나 흐름을 깨뜨리지 않고 있다.

사실 설교방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본문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할 수 만 있다면 그것이 강해설교가 될 수도 있고, 강해 설교가 아닐 수도 있으나 이종윤 목사는 강해 설교가 최선의 방식이라고 믿고 있을 뿐이다. 그의 설교에서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강해설교를 선호한다는 점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 오늘 독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문(text)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분명한 의지인데, 이 점이 그의 설교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준다. 또 이런 의지 때문에 그의 설교(sermon)에는 논리성이 있고, 그의 선포(preaching)에 권위가 있다.

이 점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그의 설교는 인기 영합적인 설교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집중하기 때문에 청중의 요구가 무엇인가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의 설교의 출발점은 청중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현대의 설교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말하는 이들은 소위 ‘상호 대화’(mutual communication), 곧 회중의 요구에 민감해야 할 것을 말하지만 이종윤 목사의 설교에서는 회중의 요구와 관계없이 들려져야 할 말씀을 듣게 하는 선포적 동기가 우선한다. 그래서 그는 복잡하게 얽힌 역사적 상황에서 주어졌던 소선지서에 대해서도 강해했던 것이다.<sup>35)</sup> 이 점은 이종윤의 설교가 대중 영합적 설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종윤 목사 자신이 설교에서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본문의 의미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에 충실하고자 하는 설교의 동기가 주는 자연스런 결과이다.

#### 4) 교회관과 신앙관: 성숙과 갱신

적어도 필자에게 있어서 이종윤 목사의 설교에서 특별한 강조점, 혹은 설교에 있어서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그의 (강해)설교집의 양도 적지 않을뿐더러 그는 일관되게 주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경륜의 모든 뜻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주제를 선호하거나 치중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의 관심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설교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가르치고 전파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주제를 선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 본인이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그의 설교를 읽은 독자로서 필자에게 감지되는 바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성숙, 교회의 갱신이 그의 설교와 가르침 배후에 있는 보다 중요하고도 우선하는 개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점은 신학적으로 그가 개혁주의 전통에 젖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그의 중심 개념이 자연스럽게 이종윤 목사의 교회관이나 신앙관에 배어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설교에는 한국의 현실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기복(신앙)적인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다. 오늘 한국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유지할 정도로 기복 신앙을 부추기기도 하고, 그것을 교회성장의 방편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이종윤 목사의 설교는 기복신앙과는 거리가 멀다. 그의 설교에서 현세적 축복이 강조되지 않는 것은 신학적 건실성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신앙적 성숙과 교회의 갱신이라는 그의 일관된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현세적 축복과 무관할 뿐 아니라 도리어 상반된 가치인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교회갱신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가치에 매이지 않는 천국시민의 삶을 지향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또 그가 말하는 교회갱신이란 일차적으로 성경적 교회관의 회복이며, 강단의 쇄신을 통해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실제적 적용: 이중 음성(duplex vox)

이종윤 목사의 설교의 주된 강조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지만 그의 설교에는 분명한 실천적인 적용이 있다. 그의 설교는 본문(text)에 우선권을 두고 있지만, 청중의 현실(context)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위한 것이므로 그의 설교에서도 구체적인 삶에의 적용이 나타나 있다.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단순한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권고가 아니라 본문을 통해 도전을 주고자 했다는 점이다. 실제적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에서는 하나님의 특별은총만 강조하지 않고 인간의 삶의 환경에서 당도하는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고 지침을 주고 있다. 그가 특별은총의 영역만이 아니라 일반은총의 대해서도 강조하는 것을 보면 그의 신학 속에 드러나 있는 개혁주의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종윤 목사의 설교에서 흥미로운 점은 개혁교회 전통에서 흔히 발견되는 소위 ‘이중음성’(duplex vox)이다. 그의 설교와 가르침에서도 죄와 악에 대해서는 거칠 정도로 강력하게 훈계하고 책망하는가 하면, 때로는 자상한 어머니의 음성처럼 사랑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기도 한다. 설교자에게는 이런 양면의 돌판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인 양무리를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엄한 경고와 채찍이 필요한가 하면, 때로는 자애로운 위로가 필요하고, 복음의 대적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는가 하면, 고난을 감내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선언하지만, 회개한 자에게는 회복을 선언한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모범이었고(딤후3:16참고),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의 주장이었으며,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이들이 실천했던 설교였다. 이종윤 목사에게서 이런 ‘이중음성’은 특히 소신지서 강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sup>36)</sup>

##### 6) 설교(preaching): 언어와 권위

설교에서 설교의 내용(sermon)이 어떠한가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에게는 설교

(preaching)도 중요하다. 전자가 내용이라면 후자는 그것을 담는 그릇이다. 혹자는 젊은 세대를 의식하여 좀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강단언어로 부적절한 용어를 의도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종윤의 설교에서는 이런 유형의 언어는 없다. ‘천박함’이 없고, 도리어 위엄하고 장엄한 용어를 선호하는 것 같다. ‘엄위하신 하나님’과 같은 용어가 그 일 예이다. 이런 점과 함께 그의 설교는 외형적으로도 권위 있게 들린다. 그의 설교(preaching)에서 감지되는 느낌을 영어성경으로 비유하여 말하면 TEV(Today’s English Version)나 LB(Living Bible)과는 다른 KJV과 같은 장엄한 느낌을 준다.

## 7) 신, 구약설교의 비교

한국교회의 일반적 경향은 구약 본문에 대한 상대적 소홀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한국교회만이 아니다. 구약학자인 악트마이어(E. Achtemeier)는 “미국교회가 구약을 상실할 단계에 있으며 구약을 상실한다는 것은 신약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의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37)</sup> 그리고 그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구약 중 어느 하나의 본문을 택하여 설교할 것이 아니라 성구집(lectionary)을 사용함으로써 구약과 신약의 본문을 하나로 묶어 선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호주 장로교회의 신학자인 나이젤 리(Nigel Lee)는 구약본문에 대한 설교의 극심한 소홀을 지적하면서 적어도 구약설교를 신약본문의 4배 이상해야 균형 잡힌 설교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교회의 강단에서도 구약 본문 설교는 매우 소홀했다. 장일선의 조사에 의하면, 1982년 당시의 대표적인 설교자 20여명이 출판한 설교집에 나타난 설교본문을 조사해 본 결과 구약이 설교본문으로 채택된 경우는 전체 설교의 25% 미만으로서 전체 설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구약 중에서도 주로 창세기, 시편, 이사야, 출애굽기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sup>38)</sup> 다시 말하면 빈도에 있어서 구약설교는 전체 설교의 4분의 1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4권의 책이 주로 설교되고 있으므로 다른 35권의 구약 본문은 비록 의도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거의 무시되거나 경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약본문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은 보수주의 혹은 개혁주의적 설교자들에게도 동일하다.<sup>39)</sup>

이와 같은 현실은 구약이해에 대한 상대적 결핍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약은 신약과는 달리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쉽게 이해 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므로 설교자에게나, 회중들에게 다소간의 거리감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시에 이 점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신학적 의미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 역사적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자의 이해의 결핍도 그 원인이다. 이런 점 때문에 구약을 설교해도 그 본문은 구속사적 관점보다는 예증이나 모범으로 이해되었고,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 치중하였다.

이종윤 목사의 경우, 출판된 설교집을 근거로 판단할 때, 신약 581회, 구약 277회로 산정할 수 있다.<sup>40)</sup> 물론 이것은 출판된 강해집에 근거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단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종윤 목사는 강해집에 나타난 858회 설교 중 구약설교가

32.3%, 신약설교가 67.7%에 해당하는데, 구약을 본문으로 설교(강해)한 경우가 다른 설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 점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이종윤 목사의 목회와 설교가 갖는 의미와 설교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는 건실한 신학적 바탕에서 복음주의적인 설교자로 활동해왔다. 필자의 주관적 해석일 수 있으나 그는 강해설교를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천착하고자 노력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스도의 구원경륜, 성령의 역사와 인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가르치고 설교하고 도전을 주었다.

오늘의 한국의 현실에서 볼 때, 물론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이 좋은 설교인가?’ 혹은 ‘그 설교가 회중들에게 감동을 주며, 삶의 변화에 도전을 주었는가’ 하는 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직한 설교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런 논의 자체가 부끄럽기는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미숙한 신학과 정직하지 못한 설교가 엄연히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종윤 목사의 설교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격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강해하고자 하는 정직한 설교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신뢰를 준다.

오늘날은 방송매체를 통해서 소위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소위 구변에 능한 튀는 설교자들이 쉽게 부상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고도 사려 깊은 설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희박해 졌다. 또 기복주의적인 설교, 비신학적인 설교, 혹은 웃기는 설교가 유행하는 현실에서 분명한 성경신학적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해하는 설교자가 있다는 점은 한국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목회는 목회자 개인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 우선이다.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며 가르치고, 교회에 명하신 선교, 구제 등 교회에 주신 본질과 사명에 충실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대형교회가 된다면 필요에 따라 대형 교회당도 건축하고 소위 대형교회가 된다. 인간적인 욕심에서 대교회를 이루려는 시도는 그 발상부터가 신학적이지 않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점은 벨직 고백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참된 교회를 판단하는 개혁교회의 전통이 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의 성격상 이 글에서는 설교자의 장점과 좋은 점을 말하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처럼 남을 비난하고 헐뜯하기 좋아하는 현실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후원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나누어 보자는 의도가 있는 줄 안다. 모르긴 해도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에도 개선되고 고려해야 할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들이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겨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해 가도록 고무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 참된 목회가 무엇이며, 설교가 어떠한가 하며 오늘 한국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도전을 받는 기회가 된다면 이종윤 목사님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는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

을 주는 것이 분명하다.

1) 이종윤 목사는 연세대학교와 대학원,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거쳐 영국 성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의 템플대학교와 독일 튜빙겐대학교에서 수학한 바 있다.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그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전주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으며, 세계신약학회(Society of New Testament Society),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등 여러 학회에서 활동했다. 1980년에는 할렐루야교회를 설립하여 목회활동을 시작하였고, 충현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으며, 1991년 11월 현재의 서울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그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을 설립하여 교회갱신과 쇄신, 목회자 교육과 훈련에 힘쓰고 있다.

2) 필자가 수득한 설교집을 초판 발행연도순(연속 단행본의 경우 1권 발행연도에 기준함)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의 비유』(1985), 『예수의 기적』(1987), 『소선지서 강해』(1990), 『에베소서 강해』(1991), 『야고보서 강해』(1994), 『로마서 강해』(I, 1995),(II, 1996),(III, 1997),(IV, 1998), 『창세기강해』(I, 1995),(II, 1997), 『빌립보서 강해』(1997), 『요한복음 강해』(I, 1997),(II, 1996),(III, 1996),(IV, 1995), 『크리스찬의 지도자들』(2000), 『산상보훈 강해』(2000), 『사도행전』(2001), 『십계명 강해』(2002).

3) 그의 신학적 저작으로는 『신구약개설』(엠마오, 1982), 『교회성장론』(엠마오, 1983), 『신약개론』(개혁주의신행협회, 1988), 그리고 St. Andrews 대학교에 제출했던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출판한 Paul and the Historical Jesus (Pilgrim Publishing Co, 1998) 등이 있다.

4) 그의 강연집으로는 『크리스찬의 신앙곡선』(필그림 출판사, 1989)이 있고, 칼럼집으로는 『순례자』 I(1993), II(1995), III(1998) 집이 있다.

5) 이종윤은 그의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은사의 목적은 봉사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하심이라.’(엡14:12). 한국교회가 이 말씀만 잘 이해했다라면 오늘 같은 혼란이 좀 적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봉사하게 하려함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봉사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178쪽)

6) 김명혁, “복음주의 신학의 동향,” 『신학정론』 제2권1호(1984. 4), 87; 조지 말스던, 『미국의 근본주의와 복음주 이해』(성광문화사, 1992), 16ff; 이상규, “한국에서의 개혁주의 신학,” 『역사신학 논총』 1호(1999), 393.

7) P. Schaff, Creeds of Christendom, Vol.III, (Harper and Brothers, 1877), 206-7.

8) George Marsden,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The Shaping of the Twentieth-Century Evangelicalism 1870-1925 (Oxford Univ. Press, 1980), 43ff.

9) 조지 말스던, 17; 박용규, 『복음주의 운동』(두란노, 1998), 44.

10) George Marsden이 지적했듯이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근본진리를 파수하려는 의지는 강했으나 대체적으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지지자들이었고, 역사를 보는 안목도 세대주의적이었으므로 염세적이고 탈 역사적 성향이 강해 세상과 문화에 대한 분리주의적이었다. George Marsden. ed., Evangelicalism and Modern America (Eerdmans, 1984), 4, 7.

11) 이런 그의 입장을 보여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설교 외의 설교테이프에 나타난 근거로는 “도망간 선지자”(2004. 2. 11일 설교 분)를 들 수 있다. 이 설교에서 그는 요나의 역

사성을 부인하는 사례를 들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요나를 역사적 인물로 인정한다. 또 이사야서의 통일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독일의 구약학자 베른하르트 뉘(Bernhart Duhm)의 『이사야서 주석』(1892)이 출간된 후 이사야서는 3권의 독자적인 책으로 분리해 왔던 역사비평을 거부하고 이사야서를 통일된 한권의 책으로 이해한다. 즉 그는 역사비평을 수용하지 않는 복음주의자임을 보여준다.

12) 이종윤, “교회갱신과 선교,” 『선교와 신학』 3집(1995), 152.

13) 이종윤, 『크리스천의 신앙곡선』(필그림출판사, 1996), 3.

14) 박용규, 196.

15) 이종윤, 『바람직한 교회형태』 신앙강좌 9권(엠마오, 1985), 30.

16) 이종윤, 『빌립보서 강해』, 4; 『소선지서 강해』, 3.

17) 이 연구원이 주관했던 세미나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설교와 목회,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교회갱신과 목회, 급변하는 사회와 교회갱신,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 강해설교와 영적갱신, 경건과 교양, 목회와 영성, 현대교회와 인성회복, 현대사회와 교회, 복음과 문화, 복음과 상황, 교회와 국가, 경건과 절제, 오늘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 새로운 목회패러다임, 새 시대의 섬김 목회 모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정보화시대의 목회와 교회성장, 21세기 교회와 전도의 새 패러다임, 21세기 목회현장의 변화와 목회신학, 정보화시대의 목회전망, 신앙과 애국, 21세기 목회의 비전, 목회 전문화와 교회성장, 회개운동과 부흥운동 등이다.

18) 이종윤 외, 『교회성장론』, 9-225참고.

19) ‘성장지상주의’란 이름 그대로 경제성장을 제일의 가치로 수용하는 사회공동체적인 인식인데, 경제성장을 추구함에 있어서 특히 GNP의 성장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는 가치체계를 의미한다. 이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이상규, “해방후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기독교와 역사』 제4호(1995), 75ff.를 참고할 것,

20) 이종윤, “성서적 입장에서 본 교회성장 원리,” 『교회문제 연구』 3집(1982. 12), 34; 이종윤, 『크리스천 지도자들』, 12.

21) 『소선지서』, 403.

22) 『교회성장론』, 223; “성서적 입장에서 본 교회성장 원리,” 46-7.

23) 이종윤, 41ff.

24) 이런 주제와 관련된 그의 논구로는, “아시아 선교전략,” 『고려신학보』 3집(1980); “공산권선교전략과 그 대책,” 『현대사조』 27호(1980. 2), 173-184; 11-14; “중공선교의 전망과 대책,” 『월간목회』 46호(1980. 6), 30-41; “중공의 상황과 기독교,” 『상황과 종교』(종교와 사회 논총 2, 1983), 175-222; “중공선교의 전망과 대책,” 『월간 고신』(1984. 6), 22-27; “교회갱신과 선교,” 『선교와 신학』 3호(1999), 127-165; “선교중심교회와 목회,” 『교회와 신학』 40집(2000, 봄), 101-110 등이 있다.

25) 이종윤, “교회갱신과 선교,” 『선교와 신학』 3집(1999), 153.

26) 이종윤, “장로교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장로교회와 신학』 창간호(장로교신학회, 2004), 13.

27) 위의 글, 14.

28) William Taylor, The Scottish Pulpit from the Reformation to the Present Day (London: Charles Burnet, 1887), 48.

29) Stewar Gill, "He made my tongue a trumpet...!": John Knox, The Preacher,"

30) 이종윤, 『소선지서』, 4.

31) 한국의 경우 박윤선은 3대지 설교의 일반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했던 박윤선의 성경주석에는 설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설교는 대체로 3대지 설교로 구성되어 있었다. 설교보조 자료가 충분치 못했던 1950-60년대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박윤선의 이런 설교 유형이 이상적인 설교로 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2) 송기태, “평신도들의 설교수용에 대한 분석,” 『목회와 신학』 (1991. 8)에 의하면, 평신도의 80.99%가 성경을 일상생활과 관련시킨 설교를 원했고, 성경본문을 강해하는 설교를 원한 경우는 9.9%에 지나지 않았다. 또 5.79%는 많은 예화를 곁들인 설교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33) 이종윤, 『예수의 비유』, 25ff. 그의 설교 전편에서 이 점은 수 없이 반복된다.

34) 이종윤, 『요한복음강해 4』, 136, 『로마서』 IV, 236, 『크리스찬 지도자들』, 90, 『산상보훈』, 11, 『창세기』, 11 등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이 발견된다,

35) 『소선지서』 강해 설교에는 때로는 유사한 역사적 배경, 동일한 사건 등이 있어 자칫 흥미를 상실할 위험이 있으나 88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주 1회 설교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1년 9개월간 설교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6) 이종윤, 『소선지서』, 17, 등.

37) E. Achtemeier, *The Old Testament and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Westminster Press, 1973).

38) 장일선, “한국교회와 설교,” 『세계와 선교』 79 (1982. 12), 36.

39) 그 대표적인 경우를 박윤선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복음(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성경주석가인 박윤선(朴允善)목사는 1970년대에 3권의 설교집, 『영생의 원천』 (1970), 『응답되는 기도』 (1974), 『주님을 따르자』 (1975)를 출판했는데 그의 설교집을 기준해 볼 때 구약본문에 대한 설교는 21%에 그쳤다.

40) 이종윤 목사의 설교(강해)집의 각각의 강(講)이나 장(章)은 1회의 설교로 간주할 때, 신약설교는 581회(요한복음 196회, 사도행전 62회, 빌립보서 33회, 에베소서 118회, 야고보서 40회, 로마서 192회, 산상보훈 40회), 구약의 경우는 277회(창세기 148회, 여호수아-느헤미아 31회, 십계명 10회, 소선지서 88회)로 계수할 수 있다.

#### 한국교회사학연구원이 걸어온 길

한국교회사학연구원은 실제 그 시작이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때 우리는 연세교회사학회로 첫 발을 내딛고 김인수 박사님을 초대회장으로 모셨다. 그 분은 초창기 연구 활동을 위해 우리 조직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학술 활동의 대강의 구도를 마련해 주셨다.

그 다음 우리는 김홍기 박사님을 회장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 때 김홍기 박사님은 『한국신학사상』 시리즈의 강좌 계획을 마련하고, 『한국 설교가 연구 강좌』, 그리고 선교사들을 연구하는 연속 강좌와 같은 일련의 훌륭한 연구 활동의 틀을 잡아 놓으셨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연구 활동을 전국적인 단위로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 1997년에 한국교회사학연구원을 발족하고 박옥선(朴玉善) 목사님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우리는 우리들의 학술 활동의 범위나 공공성 그리고 국제적인 활동의 공신력(公信

力)을 위해 2000년 7월 25일에 문화관광부 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게 되었다. 박옥선 이사장님을 필두로 하여 강근환 전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주재용 전 한신대학교 총장, 허기현 침례회신학대학교 총장, 새벽교회 이승영 목사, 신촌교회 오창학 목사, 창천교회 박춘화 목사, 홍치모 전 총신대학교 부총장, 그리고 민경배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등 9명이 이사를 맡고 있다. 감사는 장덕수 님과 김형개 목사이다.

이렇게 출발하게 된 우리는 그 후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도움으로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박옥선 이사장의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도움과 신촌교회 오창학 목사, 새벽교회 이승영 목사, 순복음국제신학연구원 김삼환 박사, 평택대학교 조기홍 총장, 도림교회 유의용 목사, 제주 서귀포 제일교회의 이윤홍 목사, 광주교회 이상호 목사, 페트라건설의 김연상 회장, 창천교회 유혜갑 권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민유홍 박사, 이런 분들의 월정(月定)기여금과 기도의 도움이 이 연구원을 지탱해 나가고 있다.

그 외에도 감사할 것이 많다.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研究員)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참여와 활동, 그리고 학술 연구, 이런 기관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서 나타난 공동체의식의 발로 그리고 월정기여금, 이런 것들을 세삼 기록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국제 학술 세미나와 같은 엄청난 행사의 준비와 그 진행을 위하여 그야말로 희생적으로 일하는 그들의 노고는 하나님 밖에는 갚아 주기 힘든 일들일 것이다. 우리들 모두는 각각 생업과 연구 활동을 하는 소속 기관이 따로 있다. 그런데도 충심으로 연구원을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크게 할애하여 그 발전과 결실을 위하여 몸 바쳐 일하고 있다.

이렇게 안과 밖의 기도와 정성 그리고 협조가 뭉쳐져서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어엿한 연구원으로서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남기고 싶으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이다.

우리는 그 어간에 국내적으로는 월례 학술 발표와 설교가 연구 강좌를 실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천환의 『길의 신학』, 본 연구원 편집의 『한국기독교사상』, 『한국교회설교가연구 1』(조용기, 김선도, 광선희, 이만신, 김장환), 그리고 백종구의 『한국 초기 개신교 선교 운동과 선교신학』, 민경배의 『정인과의 그 시대』라는 저서를 간행한 바 있다. 그리고 정기학술지 『교회사학』 I, II를 간행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연구원의 활동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여 학문의 세계화를 구형(構形)하려는 용지를 품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 사역을 우리 연구원의 독자적인 사명과 특징으로 굳히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1998년 겨울에 일본과 대만 그리고 한국의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하였다. 우리는 그 때 이런 활동과 역할 그리고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우리의 역사적 사명은 확인되고, 또 내외에 천명되었다.

이런 구상과 비전이 급류를 타고 여러 뜻 있는 연구원 핵심 멤버들의 격려와 동참으로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1999년 11월에 중국과 일본 및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교회사학협회의회를 조직하였다. 그 창립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중국도 이제는 이 협의회에 참가하여 2004년에는 중국 홍콩에서 교수 중심의 국제 세미나를 갖기로 하였고 지난 9월 말, 10월 초 일본과 한국을 비롯하여 홍콩과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런 모든 국제 활동은 한국의 교회사학 연구의 결실들을 동북아시아 지역의 이웃 교회에 알리고 그들의 역사적 문제들을 함께 생각하는, 원대한 국제적 활동을 도모한다는 것이 그

첫째 목표이다. 하지만 아울러 더 중요하게는, 다가오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그 역사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및 한국, 이 동북아 세 나라들과 교회들이 피차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서 국제적 문제들을 함께 대응하며, 교회의 역할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나서서 전위적인 역사의 일꾼들로 손잡고 협력하며 피차 지식을 나눈다는 목표가 따로 있다.

더구나 대학원생들과 젊은 학자들을 위한 세미나는 이들이 장차 이 지역의 교회와 신학의 지도자들이 되는 만큼 미리 미리 서로 인간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친숙하여져서, 향후의 동북아시아 신학계를 이끌어 나갈 때에 우리들만의 공조와 공동의식을 기반으로 이 지역의 문제들을 예의 포착하여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해결이 난감한 문제들을 명석한 안목과 판단으로 주도해 나가게 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대학원 학생들의 예리한 문제 포착의 지적 깊이와 신앙을 바탕으로 한 역사 해석의 월등한 국면을 보고 놀랐고, 이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지역 학계에 그 빛나는 학문적 수월성을 알리고 싶은 동기도 있었다는 것을 숨길 마음이 없다.

우리 연구원은 편견 없는 역사 연구의 본을 보이고 그렇게 전진하기로 천명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연구원만의 남다른 독자의 역사 연구 정신과 방법론을 우리의 학파적 자긍심과 양심으로서 표방하고 있음을 널리 스스로 밝힌다. 한국에는 교회사학 연구를 위한 대소(大小)의 여러 연구소나 기관이 있는 줄로 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남다른 개별화된 연구방법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존경한다. 그들의 공로는 어떤 연구소의 경우 실로 선망(羨望)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 기관의 다양성은 그들 연구의 방법이나 신학의 독자성으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의 피차의 상호 교섭과 공헌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실로 엄청난 학문적 자극과 학구 의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각기의 연구기관은 그 나름의 연구 방법과 그런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독특한 규모의 총체적 인격까지 따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며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신앙과 학문 그리고 인격, 그런 것들이 연구 기관마다 각각 따로 빛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앞으로 소중한 우리들의 연구와 탐색의 결실들, 그 보화들을 동료 학자들과 학계 그리고 교회에 내놓아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편달 받을 곳에서는 편달을 받아 성실과 경건 그리고 정열로 우리가 분여(分與)받은 신부(神賦)의 소명들을 다하기로 서약하는 바이다.

우리 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소서.